

아주대학교 사람들

Special Theme Global Ajou

- 06 Global Report
아주대학교의 국제화, 오늘과 미래
- 10 Global Column
진정한 Global Ajou, 더 큰 발전의 발판될 것
- 12 Global Talking
글로벌 대학으로 가는 길

아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Letter from President

오월의 축제가 아주대를 덮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학교 운동장, 관객이 모두 돌아간 행한 공간을 보면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낯선 이들과의 자유로웠던 시간? 젊음의 감성을 흔들었던 가수의 열창? 아니면 술에 흠뻑 젖어 자신을 풀어놓았던 기억?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시간과 흔적은 여러분의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추억이 특별한 것 없는 젊은 날의 기억이 될지, 여러분 역사의 새로운 시작과 계기로 남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꿈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도, 놀음도, 축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풀어진 만큼 풀어진 뒤에 다시 찾아오는 일상을 어떻게 열정과 희망의 시간으로 다시 돌리느냐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도약할 수 있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여러분의 역사를 계속 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한 길에 천착해 온 교수님의 체험 있는 강의가 뇌리를 파고드는 강의실에서, 이성과 감성이 충돌하는 도서관 책상 위에서, 노학자의 경험의 스며있는 전문서적에서, 여러분이 사색하며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분출하는 캠퍼스 잔디 위에서 여러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역사는 진행 중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역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총장 안재환

안재환



Ajou University Magazine 2012 Summer Vol. 2

아주대학교 —— 사람들

c o n t e n t s

Special Theme

- 06 Global Report
- 10 Global Column
- 12 Global Talking

Story of Ajou

- | | |
|---------------------|-------------|
| 18 Research | 서민덕 교수 |
| 20 Issue | 김은영 교수 |
| 22 Prof. Column | 김재호 교수 |
| 24 Passion | 옥상호 학생 |
| 28 Photo Sketch | 2012 원천대동제 |
| 30 Zoom in | 교통시스템공학과 |
| 32 Alumni Story | 권창훈, 장욱주 동문 |
| 34 Vision | 선우명훈 교수 |
| 41 Admission Column | 김경래 입학처장 |

Ajou Univ. News

- 16 People
- 26 Event
- 36 Award & Agreement
- 39 Medical Center
- 40 Pop-up interview
- 44 Donation News

아주대학교
—— 사람들

아주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아주대학교사람들〉은 <http://webzine.ajou.ac.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2년 7월 2일 / 발행인 안재환 / 편집인 노학래 / 발행처 아주대학교 홍보실 031-219-2918 / 기획 디자인 plus81studios 02-542-0810 / 사진 studio done 박시홍

GLOBAL AJOU

WHERE DO WE HAVE TO GO?



Global Ajou Special Theme

나라 밖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나가고, 나라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 끊임없이 소통하자는 말 'Global'. 너무 많이 들어 이제 식상한 어휘가 됐지만, 모든 대학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대학 경쟁력의 척도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번 호 특집에는 아주대학교 국제화의 요람이자 전진 기지인 국제협력팀이 평가하고 전망하는 아주대학교의 국제화와 함께 아주대학교에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았다. 그리고 글로벌 아주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대학의 모습과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았다.

06 Global Report 아주대학교의 국제화, 오늘과 미래 / 10 Global Column 진정한 Global Ajou, 더 큰 발전의 발판될 것 / 12 Global Talking 글로벌 대학으로 가는 길

아주대학교의 국제화, 오늘과 미래

글 윤정용, 김재은(국제협력팀)

시선을 사로잡는 이력서 한 장

지난 해 겨울 K를 다시 만났다.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04학번인 K는 소신대로 졸업 후 국제봉사기구에 취업을 했다. 그런데 일을 할 수록 점점 해당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에 목말라 했고, 결국 미국 유학을 결정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국제협력팀에서 인턴을 했던 K의 성실성을 평소 잘 알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 주었다. 평범한 아주대생 K의 이력서는 읽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결국 K는 해당분야 미국 최고의 대학원 3곳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았고, 그 중에서 피츠버그 대학 국제개발학 전공을 선택하여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물론 장학생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섯 번(오세아니아, 미국 2, 아시아, 유럽)이나 해외로 파견되며 전 세계를 누빈 K의 경험은 독특해 보인다. 그러나 부지런한 아주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다. 한국 최초로 복수학위 도입, 교환학생 기회를 재학 중 두 번까지

로 확대,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위해 교환학생 장학시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봉사활동, 방학을 이용한 해외 문화/어학연수, 글로벌 탐방 등 세계로 뻗어가는 아주인에게는 무대가 좁지 않다. 아주대학교의 국제화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혁신, 기회, 다양성, 질적 우수성, 독창성과 지속가능성이다.

교환학생 제도, 차별화로 승부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교환학생 제도다. 해외대학의 비싼 등록금을 내고 파견되는 타 대학의 이름뿐인 교환학생과는 달리, 우리학교는 본교의 등록금을 내고 파견되는 철저한 1:1 교류방식이다. 또한 타 대학의 경우 재학기간 중 한 번이라도 교환학생에 선발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우리학교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학교로 오는 외국인 교환학생이 늘어난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제협력팀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이 한번은 선진국으로, 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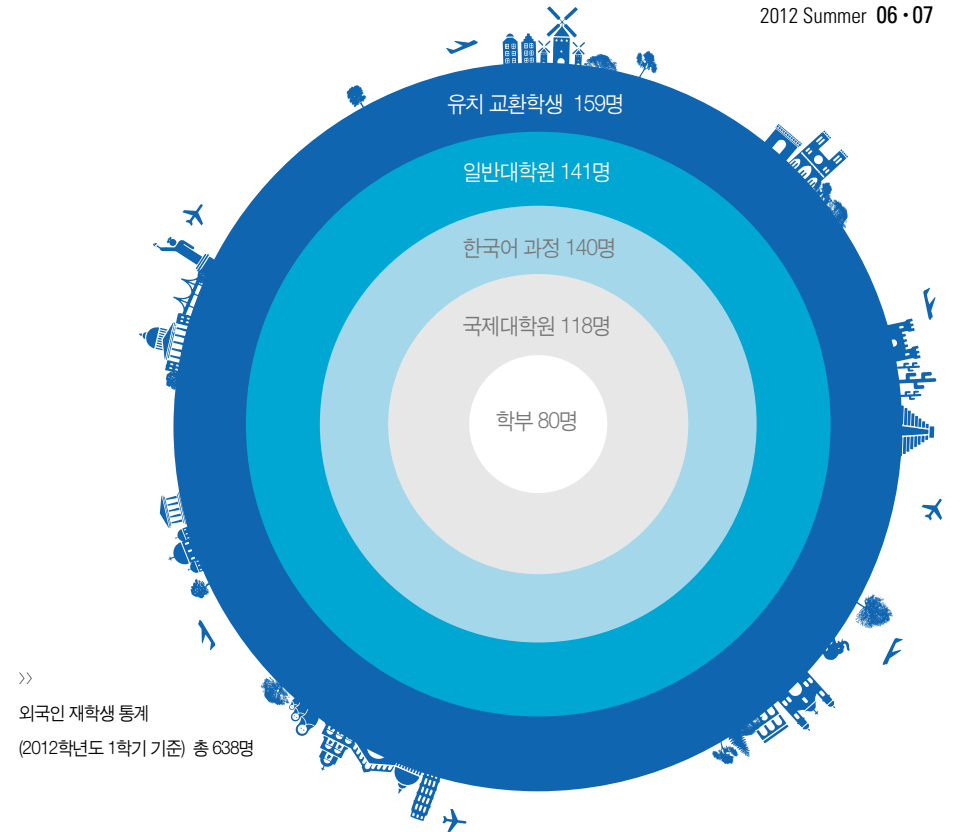
국제협력팀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이 한번은 선진국으로, 또 한 번은 개발도상국으로, 혹은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번은 개발도상국으로, 혹은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해외 수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단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금년 여름방학의 경우, 프랑스 자매대학이 진행하는 국제여름학교, 중국 자매대학에서 진행하는 중국어 연수, 아시아 문화연수, 유럽 문화연수 등으로 학생들이 파견되며, 겨울 방학에는 영어권 국가로 연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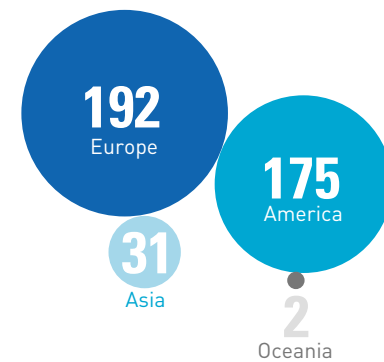
아주 글로벌 네트워크, 다양성의 상징이 되다

현재 우리학교는 전 세계 60개국 244개 대학과 교육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국내의 다른 대학이 일부 국가에 자매결연을 집중하는 것과 달리 우리학교의 파트너십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우수 대학들과 구축되어 있다. 특히 유럽대학과의 자매결연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국내 대학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EU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대학과의 파트너십 선점은 향후 국제화 발전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자연스레 우리학교로 오는 약 400명의 외국인 교환학생 중 약 50%가 유럽학생들이며, 마찬가지로 우리학생들 역시 50%가 유럽의 다양한 국가로 파견되고 있다. 대학 국제화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화 다양성 평가 부분에서 우리학교는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
파견 교환학생 통계(2011년 기준) 총 400명



글로벌 특성화, 국제적 교육 브랜드를 창출하다

아주비전 2023 액션플랜 중, ‘글로벌 캠퍼스의 실현’은 우리학교의 국제화 2단계 전략으로서 글로벌 특성화 트랙의 신설, 외국인 교원 및 유학생 유치확대, 국제학사 건립,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및 학생교류 활성화 등을 그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업은, 글로벌 특성화 트랙의 구축이다. 글로벌 특성화 트랙의 특징은 영어전용 강의와 수준 높은 커리큘럼, 프로그램의 국제화이다. 과거,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통과하여야만 우리학교로 입학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특성화 트랙을 통해 학습능력과 영어가 우수한 외국인 학생도 아주대로 입학하여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었다.

K의 이력서

- 수시 국제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교의 전액지원을 받음, 입학 직전 호주 자매대학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
-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미국 자매대학인 아이오와 대학으로 취재파견
- 2학년 여름방학 학교가 진행하는 네팔 해외봉사활동 참가
- 3학년 1학기 미국으로 첫 번째 교환학생 파견
- 우리학교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도우미 활동
- 수원시와 아주대가 협력하는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학습 지원봉사
- 4학년 2학기 스페인으로 두 번째 교환학생 수료 후 졸업



전략적 파트너십, 국제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아주비전 2023에서 설정한 목표는 2018년까지 자매대학을 240개로 확대하는 것인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에 국제협력팀은 자매대학에 대한 질적 관리 시스템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새로운 국제화 전략으로서 전 세계 240여개 자매대학의 특성과 장점, 교류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우리학교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제화를 교육과 연구 협력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어느 대학과 어떤 수준의 국제협력을 추구할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EU와 교과부로부터 재정지

원을 받는 EU-KOREA ICI 학생 및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유럽대학과 한국대학 간의 인적 교류), 해외대학들과의 복수학위, 해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원 교류 프로그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 대학과의 협력 등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한 국제교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국제협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 좋은 오후 원천관 앞 선구자상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른다. 말을 탄 선구자가 오른손에 횃불을 높이 들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듯이, 아주대학교의 국제화도 남들이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유치 교환학생 통계(2011년 기준) 총 386명

208
Europe145
Asia33
America

아주대, 국내최초 복수학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글 김중화, 강영화(국제협력팀)

2003년 2월 주요 일간지 몇 곳에
우리학교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되었다.

“국내외 대학 2년씩 수학 2개 학위, 아주大 ‘2+2’ 첫 졸업생 배출”

글로벌 인재의 요람



1990년대 중반 아주대학교는 대학의 국제화 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했다. 교환학생제도조차도 활성화되기 전인 당시, 아주대에서 2년, 해외 명문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뒤 양쪽 대학으로부터 모두 학위를 받는 2+2 복수학위 제도를 개발하였다. 1996년 미국의 명문 일리노이 공대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정부의 관련 규칙이 2000년에 개정됨에 따라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2003년 미국의 또 다른 명문인 뉴욕주립대 스토니 브룩과도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2003년 첫 복수학위 졸업자가 배출된 이래 지금까지 167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업능력을 인정받은 복수학위 출신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코넬, 콜롬비아, 듀크, 시카고, 미시건, 위스콘신 대학과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다. 또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또는 뉴욕 월가의 금융권이나 컨설팅회사, IBM 본사 등 미국 현지 기업 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공대, 뉴욕주립대 스토니 브룩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텍사스 주립대 알링턴(기계), 럿거스 대학(경영)으로도 파견이 가능하다. 매년 약 30명의 학생들이 복수학위프로그램에 선발되고 있다.

대학원 복수학위로의 확대



아주대학교의 복수학위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000년 중반부터 국내의 타 대학들에서 우리학교의 복수학위제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그 즈음 우리학교는 학부 복수학위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학원 복수학위 제도를 개발하고 있었다. 2007년 중국의 명문 상해교통대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였고, 복수학위로 유학 온 중국인 학생이 성공적으로 2008년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교육과 연구 협력이 모두 가능한 대학원 복수학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 우수대학과 대학원 복수학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학교의 교육과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다. 현재 핀란드의 UEF,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 프랑스의 파리 10대학, 뉴욕주립대 등과 대학원 복수학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복수학위 개발



최근 국제 교육 및 정책에서 강조되는 양, 질, 다양성을 모두 갖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 목적의 학부 복수학위 협정도 확대하고 있다. 1단계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로는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의 자매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3단계로는 남미 및 기타 지역의 대학들로 복수학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주대학교 동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세계로 뻗어나갈 미래를 머지않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대학교 국제화, 더 큰 발전의 발판될 것

孟君 전자공학부 4학년, 중국



나는 중국 산둥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3월 처음 한국에 왔다.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 소속의 한국어학당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며 매일 4시간씩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선생님들은 한국어를 정성껏 가르쳐 주셨고,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오는 친구들과 서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서 나의 한국어 실력은 자연스레 높아졌다. 다시 생각해도 유학 생활의 시작이었던 어학당에서 보낸 1년의 기간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맹군(孟君, 중국)

- 2006년 중국 산둥성 양산에서 고등학교 졸업

- 2008년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 수학

- 2009년 전자공학과 입학

- 2012년 9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공학과 진학 예정

나는 중국에서 물리와 수학 등 기초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기초과학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나의 전공인 전자공학은 처음 접하는 분야라 상당히 어려웠다. 그때만 해도 한국어가 서툴러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 대학 생활에 차차 적응해 나가면서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다양한 영어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특히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국제협력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제협력팀에서 외국 유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장학금이나 취업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 주어서 귀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국제협력팀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한국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GKS 장학금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서널데이나 각종 상담 덕분에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아주대에서 4학년 1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 아주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하는 것도 고려해보았는데 아직 한국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하고 전공지식을 더 쌓고 싶은 마음에 석사학위를 받고 취업하기로 결심했다. 삼성, LG 등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대학교의 선배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진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아주대학교는 우수한 공과대학으로 중국에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은 베이징대, 칭화대 등 상위 10개 학교의 입학정원이 너무 부족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아주대학교와 같은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어 한다. 나는 이들이 아주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아주대학교가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의미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글로벌 아주의 진정한 모습



Yelena Botvina

국제경영학과 석사과정 4학기, 카자흐스탄

국제화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사람, 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국제적으로 맺고 맺어지는 관계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개인적인 비밀들까지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문화권의 나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란 피할 수 없다. 이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음식과 그 외 많은 것들로부터 기인한다. 나 또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돕고 지원하며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롭고 흥미로운 각자의 생활 방식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매일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의아해 했던 점은 몇몇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매우 부끄러워하며,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허둥지둥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다는 점이다.

후에, 내가 어느 대학에서 MBA프로그램을 공부할지 고민할 때, 아주대학교는 나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카드였다. 내가 KOICA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아주대학교에 온 지 5년이 지났다. 매년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아주대학교로 오면서 그 동안 아주대학교는 더욱 국제화가 진행된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한국 학생들은 나와 같은 외국인들이 다가갈 때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주고 기꺼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우리는 단지 교과서에서만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미래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엘레나(Yelena, 카자흐스탄)

- 2007년 Kazakh Economic University Management 전공

- 2007년 KOICA 한국어과정으로 아주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

- 2008년 강남대학교 편입 후 학사학위 취득

- 2010년 8월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는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가까워지기 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며, 친구가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닌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글로벌 아주'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과장은 결코 아닐 것이다.

글로벌
대학으로 가는 길

Where do we have to go?

캠퍼스의 국제화가 대학 경쟁력의 척도인 시대. 아주대가 국내를 넘어 '세계 100대 명문사학'을 향한 힘찬 도약에 나섰다.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선 국제화 움직임 속에서 아주인이 생각하는 글로벌 대학의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좌담회를 통해 들어 보았다. 울곡관 글로벌 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김도영 교수(대외협력처장), 스캇 스캐터긔 교수(인문대학), 윤정용 과장(국제협력팀), 레이첼(미디어학부 4학년) 학생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리 이혜인(편집실)

국제화의 첫걸음,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

윤정용 과장 : 오늘은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대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2년 동안 우리 대학의 국제화 과정을 함께한 스캐터긔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초창기와 비교할 때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스캐터긔 교수 : 무엇보다 외국인 학생 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출신 국가도 다양하고요. 특히 그들의 수업 참여도가 학습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지닌 학생간의 토론이 활발해지니 가르치는 입장에선 더욱 신이 나지요. 결국 전체적인 수업의 질과 환경이 향상됨을 느낍니다. 아마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윤정용 과장 : 교수님은 학내 '잉글리시 카페(English Cafe)'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캠퍼스 국제화의 관점에서 잉글리시 카페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스캐터긔 교수 :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 영어를 사용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월 1회씩 스낵과 음료, 게임 등을 준비해 카페를 엽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영어를 활용하고, 외국인 학생들은 친구를 사귄 계기가 되니 모두에게 이득인 셈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 서로 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오늘날 생생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 전체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국제화 인프라 강화

스캇 스캐터굿 교수(인문대학)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위한
공통의 로드맵 제시

김도영 교수(대외협력처장)



“구성원 간의 심도 깊은 논의와
다각적인 접근 필요

윤정용 과장(국제협력팀)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통한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

레이첼(미디어학부 4학년)

자유로운 소통이 곧 글로벌 경쟁력

윤정용 과장 : 영어 강의가 늘어나고 외국인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발해지는 등 수업 환경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김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도영 교수 : ‘글로벌 교육’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의 세계화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니까요. 기업은 무한 경쟁에 노출된 세계 시장과 변화에 대응할 인력을 원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시야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토대를 대학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외국인 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실 안 환경으로 새로운 문화를 가져 온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캠퍼스는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죠.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정용 과장 : 레이첼 양은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는지 궁금하네요.

레이첼 :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환경에 주목했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영어 강의도 많고요. 유학생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

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타 대학에 비해 월등한 것 같아요. 또 유학생에게도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지요. 저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 이미 새로운 문화적, 교육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인데 아주대에서 다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유럽에 파견됨으로써 3차적인 문화 경험이 가능했어요. 이런 점은 아주대만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윤정용 과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핀란드 ‘탐페레(Tampere) 공대’에서 수학한 것으로 압니다. 소감이 궁금하네요.

레이첼 : 우선 탐페레 공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매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 현지 적응을 하기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또 학위과정의 외국인 학생들을 활용해 단기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데, 같은 유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요. 무엇보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과의 대화가 자유로운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탐페레 공대처럼 외국인 학생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청사진을 그리자

윤정용 과장 : 대학이 국제화를 진행하는데 몇 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교환학생 및 대학의 다원화, 복수학위제의 정착 등 1단계의 국제화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3단계의 국제화로 도약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도영 교수 : 우선,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타 대학과 차별화된 우리의 강점 및 개선점을 전략적으로 분석해 ‘우리의 다음 도전 과제’와 ‘Action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구성원의 요구와 개선사항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동기가 생산되기 때문이지요.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제화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은 결국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국제화를 통한 혜택과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스캐터굿 교수 : 아주대의 글로벌 정책은 이제 질적 향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보장하려면 효과

적인 국제화 시스템과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에서 구축한 영어 웹페이지가 국제화 인프라의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학교의 외국인 구성원들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지요. 또 아주서비스센터의 경우 외국인을 전담하는 직원분이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전체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선, 외국인 교원이 있는 학과와 관련 행정부서를 중심으로 국제화 담당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국제화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윤정용 과장 : 그렇습니다.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심도 깊은 논의와 가치 공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학과와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화 사업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레이첼 양의 포부를 들어볼까요?

레이첼 :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어학과 전공 실력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일단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박사과정까지 아주대에서 마치고 싶어요.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높고 깊게 생각할 수 있다.”

인물동정

People

고(故) 김현남 초대학장 영결식
울곡관 대강당에서 엄수

4월 28일 별세한 고(故) 김현남 초대 학장의 영결식이 5월 1일 10시 울곡관 대강당에서 엄숙히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고(故) 김현남 초대학장의 장남인 김진배(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유가족과 안재환 총장, 서문호 전(前) 총장, 이영현 대우학원 상임이사 등 교내외에서 조문객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동 교무처장의 고인의 약력 보고에 이어 안재환 총장, 강태현 동문회장의 조사 낭독이 이어졌다. 안재환 총장은 시종 애통한 분위기로 “아주대학교에 많은 기여와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지인들, 명예교수, 보직자, 총학생회장 등은 고인에게 헌화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고인의 운구행렬은 학교 캠퍼스를 순회한 뒤,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했다. 고(故) 김현남 초대학장의 부인인 최금자 여사는 장지로 떠나기 전 안재환 총장에게 “이렇게 영결식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故) 김현남 초대학장은 192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54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프랑스 낭뜨대학에서 이학박사가 됐다. 1973년부터 아주공과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1988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초대 소장을 거쳐 1993년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5월 1일 엄수된
고(故) 김현남 초대학장 영결식에서
안재환 총장이 고인의 부인인 최금자 여사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서민덕 · 하나영 교수, 연구우수교수 표창

약학대학 서민덕 교수와 에너지시스템학부 하나영 교수가 연구우수교수로 선정됐다. 서민덕 교수의 논문은 인체 세포 내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IP₃R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여 각 세부구조(Domain)의 위치 및 기능과의 연관성을 밝힌 것으로서 논문은 네이처 3월호에 게재됐다. 서 교수에 의해 칼슘 방출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IP₃R N-말단 지역의 3차원 구조가 밝혀지면서 각 세부구조(Domain)의 위치와 그런 배열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구조-기능의 상관관계), 나아가 인체 내 칼슘 항상성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에 관한 약물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영 교수는 세계 최초로 여러 색의 빛을 제어할 수 있는 광자결정을 개발했다. 하 교수의 연구결과는 SCI등재 저널인 스몰(Small)에 게재되었으며 KBS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기존에 빨강과 초록, 파랑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광자결정을 필요로 했었지만, 이번에 새로 개발한 광자결정은 그 하나로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작비가 줄어들고 제작방법이 쉬워 LCD나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까지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여식은 3월 20일 제1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각 처장 및 단과대 학장이 참석했다.

이범진 교수, 제 49회 ‘동암(東巖) 약(藥)의 상’
약학부문 수상

이범진 약학대학장이 제 49회 ‘동암(東巖) 약(藥)의 상’ 약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암 약의 상’ 수상자는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공로가 큰 인물을 선정하며,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48회에 걸쳐 총 20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범진 약학대학장 이외에도 제약부문에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약사발전 부문에 이규진 대한약사회 감사, 유통부문에 추기업 삼원약품 회장이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3월 28일 팔레스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제19대 총선에서 동문 3명 당선

제19대 총선에서 아주대학교 동문 총 3명이 당선됐다. 새누리당에는 김상민 의원(사학 92, 비례대표), 고희선 의원(화성 갑)이, 민주통합당에는 신장용 의원(수원 을)이 당선됐다.

이국종 교수, 제3회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



이국종 교수(의과대학)가 제3회 홍진기 창조인상 사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재단법인 유민문화재단(이사장 이홍구)이 매년 과학, 문화 그리고 사회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에는 이국종 교수 이외에도 과학부문에 김진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와 문화부문의 소리꾼 이지람 씨가 함께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7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렸으며 이 교수는 상금 5천만원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김형택 교수,
중국 과학원 공정기술원 겸임교수 위촉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학과장이자 BK21 에너지시스템사업단 사업단장 김형택 교수가 중국 과학원 공정기술원(CAS-IP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Process Engineering) 겸임교수로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년간 위촉됐다. 중국 과학원은 북경에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의 중심기구로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의 하나이며, 기초과학 및 자연과학 등의 연구를 하는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으로 중국의 국립 자연과학연구소다.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 Nature〉 논문 게재

» 약학대학 + 서민덕 교수

지난 3월, 'IP₃(IP₃ 수용체)과 RyR(리아노딘 수용체)의 중요 세부구조의 구조적-기능적 보존(Structural and functional conservation of key domains in InsP₃ and ryanodine receptors)'이란 논문으로 네이처지에 '아주대학교'의 이름을 올린 젊은 교수가 있다. 지난해 아주대에 부임한 약학대학의 서민덕 교수다. 평생에 한번 논문 게재하기 힘든 과학저널에 '이른' 나이에 논문을 게재한 서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났다.

글 정우준(홍보실)

몇 해 전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던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 같은 약이 등장했다. 바로 '타미플루'다. 이 약은 신종플루 치료제로 알려지면서 연일 언론에서 광고처럼 보도를 했고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는 그 가치가 치솟았다. 약 10년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의 기적의 치료제로 알려졌던 '글리벡'이라는 약도 한참 유명세를 탄 적이 있다. 이 두 약의 공통점이 라면? 바로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이용해 만들어진 약이란 것이다. IP₃R, RyR, 아마도 일반인들이라면 평생 들어보기도 힘든 이름들이겠지만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이용한 약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민덕 교수의 연구 분야는 바로 핵자기공명법(NMR spectroscopy)과 X선분광학(X-ray crystallography)을 통해 원자 수준에서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고 각 세부 구조들의 각종 결합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핵자기공명법과 X선분광학은 현재 알려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앞선 기술이다. 서 교수도 서울대 약대 물리약학실 석·박사 시절부터 이 두 방법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던 중 3년 전 박사후과정을 위해 토론토 대학에 가면서 본격적인 이번 논문의 IP₃R연구를 시작했다.

IP₃R은 우리 신체 내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단백질 종류 중 하나일 뿐이지만 약 25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거대 단백질이다. 쥐 실험의 경우 IP₃R에 이상이 생기면 아예 태어나지 못하거나 태어나더라도 바로 죽어버리게 되는 중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지만 그 구조와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베일에 싸인 존재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의 구조와 각 세부 구조의 위치와 기능을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할까? 바로 IP₃R, RyR과 같은 단백질들이 칼슘 농도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세포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생체 과정들 중에서 칼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에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칼슘 흐름은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포의 생존을 위해 칼슘의 농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많은 단백질들이 다양한 기전을 통해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 교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세포내 저장소로부터 칼슘이 방출되는 기전이다. 이번 연구도 역시 칼슘이 방출되는 기전에 관한 것이다. X선분광학을 통해 IP₃R의 N-말단지역의 세부구조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그러한 배열이 IP₃ 결합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한 것이다. IP₃가 결합했을 때와 IP₃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의 IP₃R N-말단의 3차원 구조를 각각 규명하여 비교한 결과 IP₃결합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적인 변화가 칼슘 채널(통로)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즉, IP₃R N-말단지역에 IP₃가 결합하면 마치 벌어졌던 조개가 닫히는 듯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칼슘 채널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비교적 잘 알려진 RyR(리아노딘 수용체)과 IP₃R을 비교한 결과도 논문을 통해 공개했는데 두 칼슘채널 모두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중요한 세부구조를 서로 바꾸었을 때도 정상적인 칼슘채널의 기능을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서로 다

른 칼슘 등의 이온 채널들이 유사한 기전에 의해 기능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단백질의 구조-기능 관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IP₃R의 N-말단지역 이외의 칼슘채널과 관련된 다른 지역들, 그리고 IP₃R과 결합하는 다른 단백질들의 구조와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IP₃R에 의한 칼슘 조절 기전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단백질들을 발굴하고 구조 연구를 진행해 구조기반신약개발(Structure-Based Drug Discovery)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한다.

서 교수는 수원 토박이다. 어려서부터 아주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두 보아왔고,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놀기도 많이 놀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서 교수는 아주인의 위치에서 아주대학교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본다. "이제 첫걸음을 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은 보다 깊은 연구를 진행할 대학원생도 없는 등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연구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아주대병원과 같은 캠퍼스에 있고, 주변에 국내 제약회사 연구소의 70%가 위치하고 있어서 실습과 연구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약학 전 분야에 걸쳐 저명한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약대는 약학대학계의 새로운 '강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약대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이 실린 〈네이처〉지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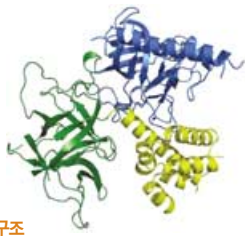
달렸더니 서 교수는 웃으며

"책을 사지 않아 없다"고 답한다.

대신 A4용지에 프린트 한 논문을 보여줬다.

마치 '앞으로 더 훌륭한 논문을 게재하겠다'는

한 젊은 교수의 무언의 의지처럼 느껴졌다.



IP₃R N-말단의 3차원 구조

IP₃R N-말단은 세 개의 domain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다른 색깔(파란색, 녹색, 노란색)로 표시된 domain들이 삼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모양의 배열이 IP₃ 결합 및 칼슘 채널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체시계 » 의과학연구소 + 김은영 교수

그 비밀의 단서를 잡다



우리 몸은 어떻게 '24시간' 리듬을 파악하는 걸까? 그리고 '그 주기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김은영 교수의 문제제기는 복잡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명료한 질문의 해답 속에는 우리 몸의 엄청난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담겨 있다. 생명과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 〈유전자와 발생 Genes and Development〉3월호에 '생체시계'의 비밀을 풀어낸 의과학연구소 김은영 교수의 논문이 실렸다. 글 이병유(편집실)

“생체시계란 우리 몸의 다양한 생명 현상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내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주기는 1개월이나 한 계절, 1년이 되기도 하는데, 학계에서는 24시간, 즉 '일(日) 주기 리듬'을 '생체리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교수는 '생체시계'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매일 아침에 나도 모르게 눈을 뜨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화장실에 가는 우리 몸의 대사와 생리 작용이 환경이나 학습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생체시계'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매우 과학적이고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다. 이는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체시계 연구는 추론과 가설에 머물러 있는 생체시계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인 방법, 즉 '실험'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어두운 암실에서도 24시간 주기로 미모사일이 벌어지고 닫히는 현상을 이미 18세기에 발견했습니다. 1960년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창문이 없는 지하



생체시계

우리 몸의 다양한 생명 현상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내재적 시스템. 그 주기는 1개월이나 한 계절, 1년이 되기도 하는데, 학계에서는 24시간, 즉 '일(日) 주기 리듬'을 '생체리듬'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시계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25시간 간격으로 자고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인체에도 생체시계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초파리가 생체리듬이 없어지거나 그 주기가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실험으로 생체시계를 작동하는 동인이 '유전자'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죠.”

생체시계와 '당'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김 교수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은 무엇일까?

“생체시계의 유전자를 이루는 단백질 중에 '피리어드(period)'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피리어드 단백질에 당의 일종인 아세틸글루코사민(O-GlcNAc)이 달라붙는 '당화'가 적게 이뤄지면 생체리듬 주기가 정상 주기인 24시간에서 약 21.5시간으로 짧아지고, 반대로 당화가 많이 이뤄지면 생체리듬의 주기가 26.5시간으로 길어지는 것을 초파리 실험을 통해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전 세계 생체시계 연구 커뮤니티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인정받아 〈유전자와 발생 Genes and Development〉에 소개된 것이다.

생체시계의 핵심 단백질과 당 사이의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이상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체시계 연구의 가치와 지향점은 무엇일까?

“이번 연구를 통해 '생체시계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생체시계의 속도가 하루 이틀 정도 교란된다고 당장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체시계에 이상이 있는 동물이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질병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체시계의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만약 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은영 교수의 향후 연구 목표는 생체시계와 우리 몸의 대사, 노화, 수면, 퇴행성 신경질환이 갖는 연결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다. 물론 생체시계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바로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약이 개발되거나 관련 질환의 치료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영역은 또 다른 연

구자의 몫”이라고 김 교수는 조심스레 말한다. 김은영 교수의 원래 연구 분야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메커니즘(기전) 연구였다. 치매나 급성뇌손상, 뇌졸중 등에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손상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뇌세포 배양을 이용하여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갈증을 느껴 '유전학'으로 방향을 돌렸다. 유전학에서 어마어마한 비전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보함에 들고 나서 간 길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아주의 젊은이에게 진심을 담아 당부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가보지 않았으니 미래는 당연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재고, 이것저것 놓고 빼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주대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크게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 실패한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 고스란히 자산으로 남는다는 인생의 지혜를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래의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대신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행복하겠는가!' 혹시 그것이 연구라면 과감히 기초 연구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얀 피부와 하얀 가운, 샤프한 무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청초한 눈빛.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듯한 목소리로 연구의 성과와 의미, 가치와 방향을 조목조목 정리하는 김 교수의 모습에서 연구자의 기쁨을 읽는다. 그리고 오차와 교란이 없는 정확한 '연구시계'도 함께 발견한다.

며칠 전, 홍보실로부터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라는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늘 앞만 보고 살았지, 지나온 시간을 별로 돌아보지 않았는데……. ‘헐! 34년 전의 대학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고? No. No. No!’ 글썸, 뭘 해볼까?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 응용화학생명공학부 + 김재호 교수

1978년 3월 2일, 저는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계열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인’이 된 것은 지금부터 34년 전 일이네요. 아주대 합격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저는 중앙대 근처 흑석동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학 후 몇 달 지나서는 서대문 충정로에 사는 제 고등학교 후배를 과외 지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4년 전에는 수원의 원천동 - 서울의 흑석동 - 충정로는 꽤 먼 거리였고, 저는 그 세 곳을 참 바쁘게 다녔습니다. 아주대는 그 때도 지금같이 학생들을 참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실험과 교편을 포함해 일주일에 30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어야 했는데 토요일에는 화학, 물리, 수학을 번갈아 가며 주말고사까지 봐야 했지요. ‘대학생활 = 낭만’이라는 등식은 완전히 남의 얘기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입주 가정교사를 하던 집에서 제가 다른 학생 과외지도하는 것을 알게 되어 쫓겨날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단식투쟁 덕에 해고되지 않고 가정교사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은 그 학생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도 벌써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있더군요. 그가 평소애 다니던 가게에 있던 〈아주대학교 소식지〉에 실린 제 기사와 사진을 보고 연락이 닿아 삼십 여년 만에 재회하여 회포를 풀었습니다.



1978년 대학 1학년생이었던 제게 가장 쉽고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고, 동아리 활동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처럼 GLEE 동아리에 들어가 매주 연습하고 합창 발표회도 하고, 김설자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던 영어클럽에 들어가 〈TIME〉공부도 하고 싶었지요. 학생 때 못한 한(恨)은 교수가 되어서 풀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부임해서 제가 처음 지도했던 동아리가 GLEE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가끔 참석했는데, 김설자 교수님께서 학교에 다시 온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공부 말고 꾸준히 좋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는 일 이외에 남들보다 잘 하는 무엇인가, 아니면 굳이 남들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소중한 것 하나 씩을 갖고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서는 왠지 삶이 더 윤택하고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1년간 연구년을 하면서 만났던 삼성그룹의 높이신 분 이야기에 의하면 삼성에 들어올 인재를 선발 할 때 여러 면을 보지만 특히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직업도 그렇지만 일 이외에 내가 좋아서 오래 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고생스러운 여행을 두 달만 하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나라도 참 좋지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 사

람들, 문화, 음식 등을 서두르지 않고 둘러보고 싶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경험할 수 있으면 나이가 들어갈 때 잠시 짬을 내서 돌아보고 경험하는 것보단 훨씬 제 삶에 좋은 바탕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현명하고 깊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체감 행복도 더 나을 것 같고 우리가 속한 주변에 좀 더 좋은 이웃과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열정을 바칠 일을 찾고,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본인과 주변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밝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1학년 학생 세 명을 면담했습니다. 다음 주면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그런지 세상에 무서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야 할 우리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조금은 피곤해 보였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까, 졸업하고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대는 언제 갈까, 교환학생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등 비슷한 질문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해주고 말미에는 이제 ‘야자’, ‘숙제’, ‘시험’ 다 없는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이니 하고 싶은 것을 눈 꼭 감고 한 달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행이든, 갖고 싶은 iPad를 사기 위해 돈을 벌든, 몸짱으로 짜잔~ 하고 2학기 때 나타날 수 있게 운동을 하든,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한 달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눈이 조금 더 뚱그래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몇 명은 자유로운 한 달을 계획하고 있길 기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영어공부는 어떠냐고요. 그 X의 영어……. 대학 들어올 때도 애먹었는데, 곧 취업 시즌이 되면 또 그 영어가 화두거든요. 종목에 상관없이 운동선수에게 체력과 근력이 좋으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듯이 대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영어를 잘하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1학년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 얘기하며 공부 얘기하기 미안했지만, 그래도 영어 얘기 했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영어 공부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왜 굳이 영어냐고요? 중국이 대세인데 중국어는 어떠냐고요?아! 그럼 그러시던지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까?

졸업하고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대는 언제 갈까?

교환학생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1학년 여름 방학이니 하고 싶은 것은 눈 꼭 감고 한 달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몇 명은

자유로운 한 달을

계획하고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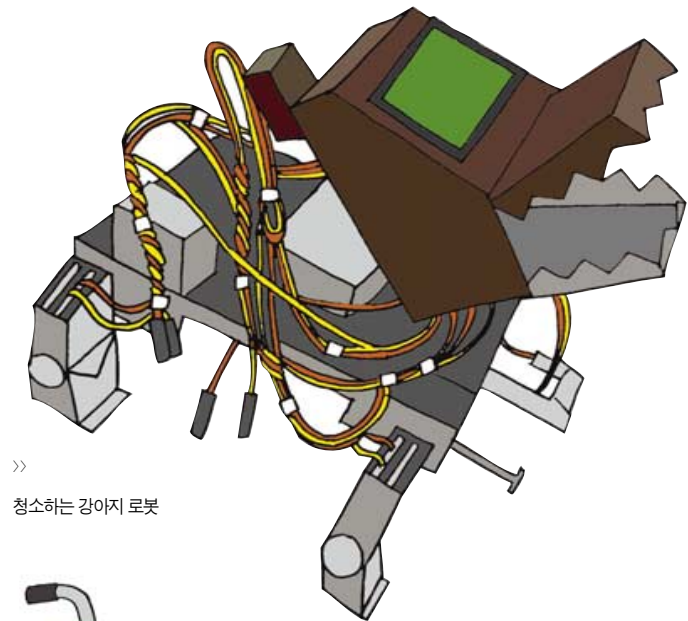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아주 좋은 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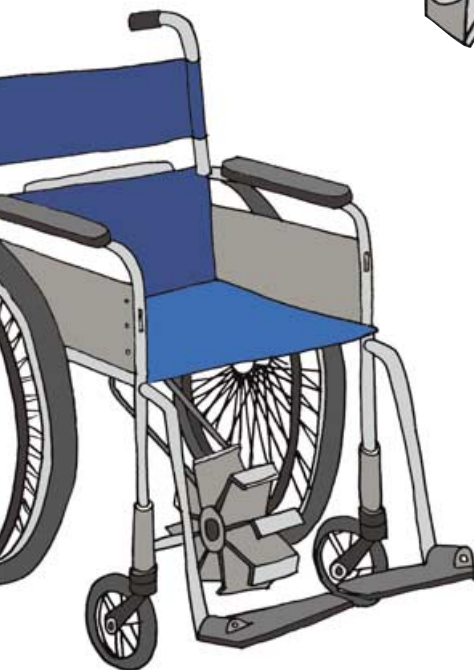


» 옥상호 학생 + 전자공학부 06

중국 산둥성 정부 주최 한중 발명 전시회 금상, CIGFI 사이버 국제발명천재대회 특별상 및 금상, INOVA 크로아티아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말레이시아 국제기술 발명혁신전시회 특별상, 두 건의 특허와 한 건의 실용신안 보유 '화려한 경력' 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옥상호 학생의 꿈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글 이현주(편집실)



» 청소하는 강아지 로봇



» 턱옴용 기어가 장착된 휠체어

흰칠한 키, 훈훈한 외모의 이 청년 능력자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갖추었다. 중학교 때까지 남들과 '조금' 달랐을 뿐 특별하지는 않았던 옥상호 군은 고등학교에서 발명과 처음 인연을 맺는다. 그의 최초 발명품은 '청소하는 강아지 로봇'. 애완용 강아지를 리모콘으로 조종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버릴 수 있게 설계한 기발한 발명품이었다. 4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낼 만큼 실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분당중앙고 로봇반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옥상호 군이 자신의 재능을 최초로 입증한 작품이었다. 대학생이 된 그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발명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재미를 붙이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삼성 애플 간의 특허소송 전쟁에서 보듯, 앞으로 국내의 지식재산 전쟁이 본격화 될 것을 내다본 옥상호 군은 일찌감치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미 그 꿈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10년 특허기술경영사(PMOT) 자격증을 딴 것은 그 노력의 일부분이다.

"특허기술경영 공부를 따로 한 건 공학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비롯됐어요. 공대 출신 경영인이 마케팅까지 알면 으뜸가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옥상호 군이 발명한 '이동단말기 분실 시 개인정보 관리 방법 및 그 장치'는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자 2011년 12월 특허를 받은 지식재산이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암호를 변경해 잠금 상태로 유지하고 데이터를 서버에 올리거나 동기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다시 찾았을 때 서버에서 저장된 정보를 다운받아 다시 사용할 수

"어릴 적에 다들 미니카를 가지고 놀잖아요. 친구들은 그냥 사서 굴렸지만 저는 여러 개를 사서 분해하고 까고 조립해서 놀곤 했어요."



옥상호 군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다. 청춘에게 그보다 큰 무기가 또 있을까.

그의 꿈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된 청춘. 그의 열정을 응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있다. 주목할 점은 옥상호 군의 발명품과 유사한 SKT스마트 키퍼서비스, KT내폰 찾기 서비스, 안철수 연구소 AHNLAB V3 Mobile 2.0 등의 서비스보다 출원이 매우 빨랐다는 것. 이와 더불어 '중력센서와 주파수 신호 장치를 이용한 실내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턱옴용 기어가 장착된 휠체어'도 그가 발명해 각각 특허와 실용신안을 얻은 그의 소중한 지식재산이다.

실패를 몰랐던 옥상호 군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그에게 처음 좌절을 맛보게 해준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아주대학교였다. 2005년 전자공학과 수시모집에 지원했지만 낙방하고 말았다.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던 성적은 고교 시절 로봇반 활동에 매진하느라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최저 학력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재수를 결심한 그는 인생 최고의 각오를 다졌다. 친구를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수학원을 집에서 먼 곳으로 정했고 짧은 그의 인생에서 후회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덕분에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의 성적은 점차 상승곡선을 그렸고, 아주대학교 수시모집에 두 번째 도전할 때 성적이 점차 오른 성적표를 지원서에 차곡차곡 붙여 함께 제출했다. 로봇, 발명 특기자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던 그는 결국 2006년 전자공학부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리고 그를 알

아봐 준 학교에 보답이라도 하듯, 2010년에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 부회장으로 학우들을 위해 봉사했고, 입학 이래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발명팀 '아주좋은발명' 팀장으로 재능을 나누어주고 있다. 옥상호 군은 현재 대한민국 인재연합회(이하 대인연)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모임에서 짝을 짝운 대인연은 꿈을 이루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다. 진로 길잡이가 되어주는 1대1 멘토링이 핵심 활동이지만, 그간 여러 기업의 후원을 받아 창의워크숍, 창의영재 해외연수캠프, 충남 창의영재 발명(과학)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열기도 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순수하게, 자신이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옥상호 군과 동료들의 열정으로 이룬 결과다.

"멘티가 많아지면 멘토도 늘어날 테고, 언젠가 멘티가 다시 멘토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 계속 대물림해 가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옥상호 군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다. 청춘에게 그보다 큰 무기가 또 있을까. 그의 꿈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된 청춘. 그의 열정을 응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행사소식

Event



교통시스템공학과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제세미나와 함께 기념행사, 동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기념했다. 국제세미나와 기념행사에는 교통시스템과 관련한 국내외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교통시스템공학과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세미나 개최

교통시스템공학과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세미나가 4월 26일 목요일 아주대학교와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오전 올곡관에서는 더홍리(싱가폴국립대학), 윌리엄램(홍콩폴리텍대학), 아사드카탁(올드도미니언대학교), 파노스 프레베도로스(하와이 대학), 아브텔아티(센트럴플로리다대학), 이진우(퀸즈랜드공과대학), 박병규(버지니아대학)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국제세미나는 ‘최근 대중교통시스템과 ITS 성과(Recent Public Transportation and ITS Achievements)’와 ‘교통안전과 운영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Global Efforts for Traffic Safety and Operations)’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오전 특강 교수들과 카즈히코 야스이(니혼대학), 문영준(한국교통연구원) 교수, 최기주(교통시스템공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국제세미나 후에는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및 동문의 밤이 이어졌다.



‘신입생 학부모 대학 방문의 날’ 행사

‘2012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대학 방문의 날’ 행사가 약 900 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4일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렸다. 총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캠퍼스 투어, 아주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교무처장의 특강, 각 대학별 행사가 이어졌으며, 대학별 행사 시간에는 학과 소개와 교육시설 견학, 교수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신입생 학부모 대학 방문의 날’ 행사는 모든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대학 중 아주대학교가 유일하다.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전원 합격’ 축하연

제1회 변호사시험 전원 합격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4월 4일 종합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대학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아주대학교와 경희대뿐이다. 특히 아주대학교는 비법학사 비율이 80%로 타 대학에 비해 높아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전원합격을 달성해 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1,663 명이 응시하고 1,451 명이 합격해 평균 87.3% 합격률을 기록했다.



인조잔디구장 건립유치 기념식

3월 26일 인조잔디구장 건립유치 기념식이 운동장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인조잔디구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인조잔디구장 설립기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안재환 총장은 “인조잔디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아주대학교 축구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님과 문화산책’ 행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님과 문화산책’ 행사가 5월 15일 성호관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총 14개 팀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평소 다가가기 어려웠던 교수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며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01



04



03



05

2012

원천대동제
아주 놀아보자



“ 지난 대동제 3일 동안 누구보다 잘 놀았다고 자부하는 나, 박술(전자공학부 11). 이날을 위해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 부스를 누비며 '이 한 몸 바쳐 즐기리라!' 단단히 마음먹었죠. 타로카드와 해나 체험도 해보고,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길거리 공연도 구경하고, 주점을 운영하느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잖아요? 미치도록, 젊음을 만끽하는 날!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캠퍼스를 뒤덮은 아주인의 열정을 전합니다.

01 아주대 홍보대사 '아우라(AURA)' 친구들과 함께, 화창한 날씨에 대동제를 맞아 모두들 들뜬 표정입니다. 풍선처럼 동동~ 부푼 마음을 안고 출발!

02 대동제 둘째 날 밤, 노천극장에서는 아주대 응원단 '센토'의 30번째 응원대제전이 열렸어요.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패기 넘치는 무대를 보여준 센토, 그리고 뜨거운 함성 속에 하나된 아주인들! 경기대와 경희대 응원단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03 큰 웃음을 선사한 건축학부 주점, 복고 콘셉트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have-item)인 빨간 머플러와 청재킷을 갖춰 입은 센스가 돋보이네요. 추억의 군것질거리 '달고나'도 반갑고요.

04 창작시 동아리 '소금꽃'의 전시작, 활기찬 축제 현장을 즐기는 한련, 다양한 동아리·소학회에서 준비한 야외 전시 작품들을 차분히 감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05 "다함께 손 머리 위로!" 대동제의 하이라이트, 끼 콘테스트와 화려한 공연 무대. 초청가수들 못지않게 끼 많은 재학생들이 총출동해 관중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리에 불과한 좁은 나라에서 백성의 생활이 이토
록 가난한 것은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 (선
비와 벼슬아치들이) 수레를 부리는 기술을 도통 연구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책을 헛 읽는다’ 는 것이니,
… 아! 한심하고 기막힌 일이다.”

-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에서 -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효율
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지하는 교통시스템공학! 자부
심을 가져도 좋겠다. 21세기, 연암과 다산의 후예들이
모여 있는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를 찾았다.

글 이병유(편집실)

교통과 通하다

» 교통시스템공학과 탐방

교통시스템의 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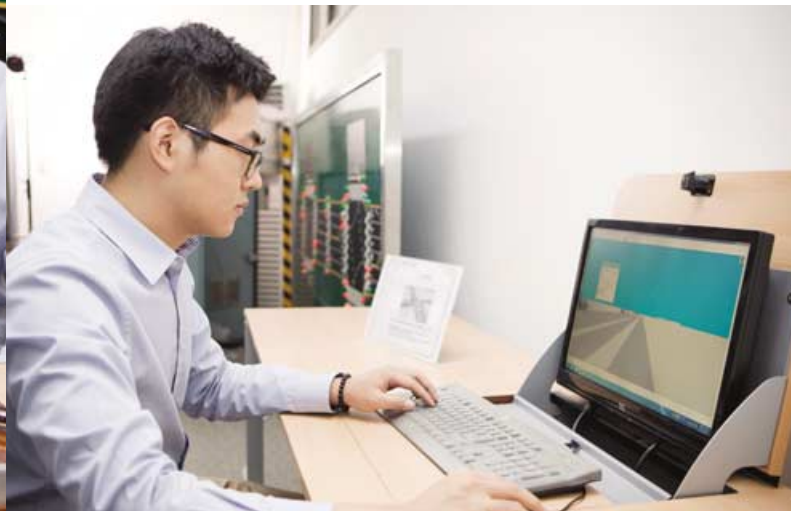
얼핏 보면 어느 과학자의 재미난 실험실 같은 교통시스템공학과와의 실험실. 하지만 가격이나 규모가 만만치 않은 장비들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학문이다’ 라고 웅변하는 듯하다. 그 명칭은 익숙지 않지만, 학문의 의미와 목적은 매우 뚜렷한 ‘교통시스템공학’ 은 그 정직한 이름처럼 ‘교통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구 분야는 크게 ‘교통계획’ 과 ‘교통운영’ 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교통설계는 물론 교통건설 및 관리 등 모든 교통시스템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과 설립 20주년, 국내 최초 교통공학 석사과정

지난 4월 26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는 20주년 기념식과 국제세미나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1992년 ‘교통공학과’ 라는 이름으로 학부과정이 개설되었다. 특이하게도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는 1989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먼저 개설되었다. 이는 국내 최초의 교통공학 석사과정으로 그만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과는 전문화된 인력과 검증된 커리큘럼,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2년, 2008년에는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대학원과 U-SOC최고위 과정을 각각 특수대학원 과정으로 신설하여 총 4단계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학업과 연구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선도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가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업계를 선도하는 분야는 바로 ITS, 즉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다. ITS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처리하여 운전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추천하는 최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비롯하여 버스도착 및 주차정보 시스템, 도로 전광표지나 돌발 상황 정보제공 등 교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진은 물론 졸업생들은 국내 ITS 분야 곳곳에 포진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세창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장)는 “지금도 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동문이 우리나라 ITS 분야를 석권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연구소 등 모든 교통시스템 현장에서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와 위상을 굳건하게 다질 것” 이라고 희망찬 포부를 내비쳤다.



Interview

오영태 ITS대학원장



“교통전문가 수요 계속해서 확대될 것”

‘교통시스템공학’ 이란 학문은 언제 어디서 시작됐나?

1950년대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 후 교통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고 그 수요가 커지면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89년 국내 최초로 아주대학교에 교통공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그 이후 학문의 대상과 영역이 보다 넓어지고, 전문화·정밀화·첨단화 되면서 ‘교통시스템공학’ 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와 차별화와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1천여 명에 달하는 동문이 ITS 분야 곳곳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와 든든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짜임새 있고 실질적인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학업의지로 상당수의 학부 졸업생이 교통기사 1급자격증을 취득한 후 졸업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공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현재 교통시스템공학과 졸업생들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삼성SDS, 대우정보시스템, LG CNS 등 대기업, 교통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국책연구소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교통의 최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기도 교통전문 공무원 14명 선발을 비롯해 교통순경 특채 등 교통 관련 전문가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공학과 및 ITS대학원의 비전과 향후 계획은?

무인자동차나 시각방지 차선시스템과 같은 CITS(Cooperati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분야에 비전을 가지고 연구와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강의 같은 ‘e-러닝(learning)’을 통하여 교육의 공간적 제약을 없애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과 하늘을 '실제 나는' 기분의 차이, 비행기 좀 탔다고 알은체 하지 말자. 적어도 이들 앞에서 만큼은. 직접 거대한 동체를 움직여 하늘에 띄우는 두 남자, 고공을 유영하며 때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하다는 그들은 오늘도 하늘로 출근하는 '파일럿' 이다. 글 이현주(편집실)



권창훈 동문



장욱주 동문

세상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행운아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아시아나항공 보잉747 기장 권창훈 동문과 A320 부기장 장욱주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대화를 나누지 고작 몇 분 만에 비행기 조종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처럼 느껴지다니. 역시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승객을 편안히 이끄는 '기장님' 답다.

“세계를 돌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요. 그건 곧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무엇보다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동기와 경쟁할 필요 없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남자라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입니다.”

권창훈 동문이 천직을 찾게 된 것은 4학년 1학기, 아주대학교 사회진출센터를 통해서였다. 취업을 준비하던 그의 눈에 금호그룹의 채용 안내가 눈에 들어왔고, 이에 응시해 첫 시험을 통과한 것. 3월부터 2주 간격으로 필기시험, 면접, 영어인터뷰,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치른 그는 6월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4학년 2학기였던 95년 10월,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미국에서 받은 1년 동안의 위탁교육을 포함, 총 2

가장 높은 곳의 남자 >> 권창훈(산업공학과 89), 장욱주(영문과 97) 동문

년 반의 교육 과정을 거쳐 부기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민항기 조종사가 되는 길은 몇 가지가 있다. 현재 항공사에 몸담고 있는 기장 중 약 50%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거쳐 민항기 조종사가 된 경우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나 한서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를 나와 항공사에 입사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 졸업자의 경우, 권창훈 동문처럼 항공사에 공채로 입사해 기장이 될 수 있다.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회사가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부담했지만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부기장으로 임명된 후 급여에서 훈련비를 상환해야 하지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1억 원 정도 상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공채에 응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약 1억 원의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학번으로나, 입사 순으로나 권창훈 동문을 하늘같은 선배로 모시고 있는 장욱주 동문은 바로 그 과정을 밟아 조종사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졸업 후 미국으로 떠났다.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돌아와 취업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기에 심적 부담 또한 큰 모험이었다. 힘들었지만 설레는 과정을 거쳐 장욱주 동문은 결국 꿈을 이뤘다. 지금 그는 비행하는 순간이 더없이 행복하고 일의 재미에 푹 빠져 출근하는 길마저 즐겁다.

“새벽에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상공에서 유성 10여 개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선배님은 오로라를 직접 보신 적도 있으셨다고 했죠?”

그렇게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황홀경을 직접 보지 않고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남들 쉬는 명절에 일하고, 시

차 적응에 힘들고, 악기상에서의 비행과, 늘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권창훈, 장욱주 동문은 조종사가 최고의 직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래서 후배들이 그들과 같은 길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고.

“학점이 낮아서, 체력이 좋지 않아서, 여자라서 등을 이유로 미리 한계를 긋지 말고 이 길에 도전했으면 합니다. 항공업계의 전망을 내다볼 때, 유럽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중동과 중국, 일본 내수시장은 확장 국면이어서 조종사들에 대한 수요는 결코 줄지 않을 것입니다.”

권창훈 동문은 후배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좇지 말았으면 한다. 인생은 마라톤처럼 길게 봐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꿈을 이룬 기쁨에 피곤함도 잊고 지내지만 장욱주 동문은 아직 목표가 남아있다. 바로 기장이 되는 것과 훗날 A380을 조종하고 싶은 것. 항공기 조종사는 본인이 조종할 수 있는 기종이 정해져 있다. 최신형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은 것은 조종사로서 당연한 꿈일 듯.

권창훈, 장욱주 동문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주저 말고 찾아가 조언을 구해 보자. 후배들에게 꼭 도움을 주고 싶다는 선배들이 이미 하늘 길을 닦아 놓았으니, 이제 날아오르는 법만 배우면 되지 않을까.



권위는 곧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다.

하여,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소사이어티 회

장'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선우 교수

자신만의 몫이겠는가. 그의 역할이 아주

대 전자공학부, 나아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임을 우리

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이혜인(편집실)

새로운 IT역사의 주역, 시스템 반도체

>> 전자공학부 + 선우명훈 교수

ISCAS 2012, IT 기술의 올림픽에 도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전기 · 전자 및 컴퓨터 분야의 세계 최대 학회다. 지난해 선우 교수는 IEEE 석학회원(Fellow)에 선임되었다. 160개국 40만 명의 회원 중 연구 업적이 뛰어난 상위 0.1%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이어 선우 교수는 IEEE의 의결기구인 BOG(Board of Governor) 이사에 전 세계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약 390편의 논문 발표, 55개의 특허, 28회의 우수논문상 수상 등 그간의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선우 교수가 속한 IEEE CASS(Circuits And Systems Society)는 매년 '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ISCAS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를 주관한다. IT · 반도체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학술대회다. 올해 4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1968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만 26회 개최되었다. 그 밖에 캐나다와 일본 각 3회, 영국과 프랑스 각 2회, 독일, 스위스, 호주, 대만 등이 각 1회씩 개최했다. 명실상부 IT 선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면 섭섭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선우 교수는 "한국은 세계 첨단의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을 보유한 반면, 국제 협력 및 학술 교류 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선우 교수는 대내외적 요청을 받아 IEEE CASS 한국지부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여러 교수들과 함께 제안서를 준비했고 정부와 기업이 이들을 지원했다. 마침내 2008년 시애틀 선정 회의에 첫 도전장을 내민 한국, 5개국의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이 'ISCAS 2012' 개최지로 만장일치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로 기술을 세계 최고 전문가 집단에 알리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절호의 발판을 맞이한 것이다.

정부 · 기업 · 학계의 삼박자가 이룬 "The Best Ever"

선우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회장으로 행사 운영의 선봉에 섰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학회 행사인 만큼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더 없이 막중했을 것. 유치 성공 이후의 행보가 궁금했다. 선우 교수는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었던 1년 반 동안 무려 90번의 회의를 거쳤다. 특히 지역위원을 맡은 김재현 교수



신성장동력, 시스템 반도체를 주목하라

'시스템 반도체'는 프로세서 · 주변기기 ·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해 전자기기 시스템을 제어 · 운용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선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D램, 플래시 메모리 등)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에 뒤처진다.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4.5%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체된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배 이상이고 매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올해는 시스템반도체 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돼 관련 기업들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우리의 전자산업이 경쟁력을 지닌 모바일 기기, 디지털 가전, 자동차 등에 필수 부품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성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공학부),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안재환 총장님 등 우리 대학에서 큰 힘을 보탰다"며 "지식경제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와 지자체, ISCAS 역사상 가장 멋진 부스를 준비한 삼성전자까지 각계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기에 성공적 개최를 확신했다"고 회고한다.

'ISCAS 2012'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BINET(Bio, Info, Nano, Enviro Technology)의 융합'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대회장인 서울 코엑스(COEX)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1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선우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전례에 비해 데 없이 훌륭한 만찬과 함께 한류스타 포미닛의 특별 공연, 전북국악원 60명의 단원을 초청한 전통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졌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다. "The Best Ever(역대 최고)"라는 찬사가 대회장 곳곳에서 쏟아졌다.

자유로운 연구,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길

선우 교수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다 학생 덕"이라고 말한다. 1992년부터 이주대에 몸담은 지 올해로 20년.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지난해 5월 졸업생들이 학교를 방문한 '홈커밍 데이'를 추억하는 선우 교수의 표정이 밝다.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하던 제자들이 사회에 진출해 활약하는 모습이 대견할 따름이라고. 한때 '지옥훈련'이라 불릴 만큼 엄격했던 연구 지도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선우 교수는 "전자공학은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다. 이에 대응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려면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격려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연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최초로 ISCAS를 개최하기까지 바쁘게 달려온 나날을 뒤로하고,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선우 교수. 지금 그의 소망은 단 한 가지다. 학생들과 MT를 가는 것.



수상 및 선정

Award & Selection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아주대학교가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2008년부터 5년 연속 선정이며, 이로써 아주대학교는 올해 약 12억 2천 8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올해에는 총 143개 대학이 신청해 97개교가 선정됐다.

'2012 공생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대학'으로 선정

아주대학교가 한국일보 주최 '2012 공생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우리 학교를 포함해 총 20곳이며, 이 중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아주대학교와 강원대 창업지원단, 금오공대 그린에너지시스템 인재양성센터 3 곳이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에 선정

아주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아주대학교는 정부출연금으로 연평균 약 2억 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자체 지원금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기획처, 2011학년도 우수사업 10개 선정

5월 22일 아주대학교 기획처는 예산집행의 안정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학년도 예산집행 사업결과 평가 우수사업' 10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를 격려했다.

김현우 학생, '2012 대만 국제 발명경진대회' 특별상, 금상 수상

김현우 학생(e-biz 06)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만 팔 이스트대학과 타이난 타이페이에서 열린 '2012 대만 국제발명경진대회'에서 특별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총 12개국 초·중·고, 대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현우 학생은 'Smart phone & Social contact utilize ultra-thin case'으로 특별상과 금상을 각각 1건, 'Mobile Security System'으로 특별상 2건을 수상했다. 김현우 학생의 아이디어는 스마트폰 분실 시 휴대폰의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협약 및 체결

Agreement



중국해양대학교와 상호발전 위한 협약 체결

아주대학교와 중국해양대학교가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 학생 수 2만 5천 명의 중국해양대학교는 산둥성 청도에 위치한 중국의 핵심 종합대학으로서 중국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지원을 받고 있다. 협약식은 3월 28일 중국해양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안재환 총장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관계자와 우더싱 중국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약학대학, 경기바이오센터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4월 10일 약학대학과 경기바이오센터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연구자 및 연구정보의 교류, 연구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연구기자재 및 시설 공동사용,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강사 및 학생 교류 지원 등 교육 및 연구, 학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받게 됐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기술 발전 위한 업무협약

5월 23일 아주대학교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재환 총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산학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교통 분야를 선도하고, 교통안전 및 신기술 개발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학점교류 협약 체결

3월 15일 아주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학술교류와 학점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교직원 상호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이로써 양교의 학생들은 총 2학기 이내로 상대교의 전체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교류학생의 수는 정규학기는 전공별로 3명, 계절학기는 인원 제한이 없다.

그 외 소식

News Brief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 ITRC포럼에서 전시회 개최

아주대학교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Tactical Network research Center, 이하 TNRC)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리는 IT연구센터(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이하 ITRC) 포럼에서 '아젠만 여명작전'과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중심전) 통신기술'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TNRC는 NCW의 사례를 분석한 3D 애니메이션 동영상 상영하고, 디지털 무전기, 음성/영상 데이터전송 기술, 위성통신기술 시연 및 체험 등 전시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TLO 지원사업 등급 상향

'2011 대학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TLO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5년간 총 3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아주대학교의 등급상향에 따른 지원금 규모도 연간 2억 2천 5백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했다.

88명 멘토, 12학번 신입생 멘토링 활동 본격화

4월 17일 88명의 아주대학교 멘토단이 2012년 아주멘토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멘토 활동을 시작했다. 학부 3, 4학년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동일 전공 25명의 12학번 멘티들에게 교육과정과 대학생활의 설계, 교내 외 활동 전반에 도움을 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영대학, 논문 실적 기준 평가에서 국내 10위 기록

경영대학이 미국 텍사스대 댈러스 캠퍼스(UTD)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 논문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영대학 순위에서 국내 대학 중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 이어 10위를 기록했다.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이 189.63으로 1위에 올랐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미시간대 앤아버 캠퍼스, 듀크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1회 아주창업캠프 수상팀, 정부지원금 받아

지난 2월 제1회 아주창업캠프에서 수상한 '스킨리본' 팀과 'Smart Blackbox' 팀이 경기중소기업중합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각각 1천5백만 원과 8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헌혈증 기부

5월 9일 자연과학대학 학생회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137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가 4월 9, 10일 열린 벚꽃축제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혈캠페인을 펼쳐 모은 것이다.



의료원 소식

Medical Center



아주대병원, 위암, 간암, 대장암 수술 최우수평가 받아

아주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사망률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 암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병원임을 증명했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302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평가한 것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암환자의 사망률은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아주대학교병원에는 고위험 환자가 많음에도 좋은 치료결과를 보여 암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주대병원, 유방암 수술 '으뜸'

아주대학교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 입원하여 유방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평가됐다.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이 공개한 2010년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유방암 병원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유방암 수술비용과 재원일수에서 아주대병원이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기 89%, 3기 64.4%인데 반해, 아주대병원은 2기 92.9%, 3기 77.2%로 뛰어난 치료성적을 내고 있다.

의료원, 수원시와 마음맺음 사업 협약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은 3월 29일 수원시보건소와 '마음맺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한 '지역사회 노인 봉사실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의과대학 신입생 전원은 지역사회 노인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1년간 결연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질병이나 약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의료원,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협약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은 4월 5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다리혈관 치료를 선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주대학교병원 다리혈관을 리닉은 북아시아 최초로 다리동맥 협착병 치료의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축적된 치료기술과 최신 의료기법을 아시아 각 국가에 전파할 예정이다. 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아주대병원의 북아시아 지역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e) 협정을 통해 국내 외 의료진 교육과 다리동맥 협착병 치료에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장,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선임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장이 제36대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에 선임되어 2년동안 임기는 수행한다. 유 병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고, 현재 세계 부인암학회 지명위원(Nominating Member of IGCS), 미국 부인암학회(SGO) 정회원이며, 부인암학회지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과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 대한부인종양학회와 대한비뇨부인과학회의 차기회장으로서 올 하반기부터 회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팝업 인터뷰

Pop-up interview

안영식 계장(구매관재팀)이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근무했던 직무 경험을 살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760만원 전액을 아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화제다. 지난해 8월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제고 및 국내박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공모했고 이에 임한 조 일반대학원장이 책임연구자로, 안영식 계장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우수 인력들이 석박사 학위를 위해 해외로 진학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에 제시된 여러 방안들은 입사 후 10년 동안 아주대학교 교무팀과 교학팀에서 근무했던 안영식 계장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다. 연구책임자인 임한조 대학원장은 "교무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 같다"며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관심과 만족감도 높다"고 연구 결과를 평가했다.

아주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

» 안영식 계장(구매관재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논문의 큰 그림을 읽어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이신 임한조 대학원장님의 도움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에 적합한 학술적인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업무 외 논문 작성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힘들기도 했지만, '이것 역시 나의 임무이고 이번 연구가 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으로서 주도적인 연구 참여에 보람과 자부심이 클 것 같다

아이디어 제공 수준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큰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논문'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듯하여 뿌듯합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이 연구결과가 아주대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학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원생이 연구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연구자의 본래 임무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는 사회적 인식, 즉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는 결국 대학의 재정적인 지원 및 투자와 연결됩니다.

용역비 760만원을 학교에 기부했다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일터에 무언가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내고 그에 대한 임금도 기부하여 온전하게 기여해 보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나의 직장인 아주대학교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특성화학과 및 신설학과

아주대학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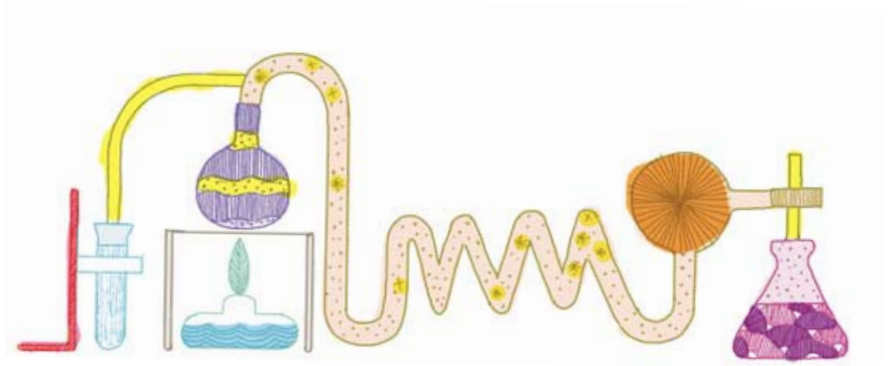
입학처장으로서, 아주대학교 교수로서, 아주대를 20년 지켜본 아주인으로서 자신있게 말한다

미래의 아주대학교 모습, 기대해도 좋다!

짜임새 있는 학사체계, 높은 취업률로 이어져

아주대학교는 군더더기 없이 짜임새 있게 학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단 예체능 관련 학과가 없다. 모든 학과가 학문연구에 주력해야 하는 학과로 구성되어있다. 의학학 계열만 보더라도 한 캠퍼스 안에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의료원이 자리잡고 있어 학문간 소통이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크다. 또 한불기술협력을 계기로 '아주 공과대학'으로 개교한 학교답게 학과구성이 실용학문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정원의 70%정도가 자연계열로 이 중에서도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이 80%가량 된다. 학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보통신대학의 경우 타대학에는 공과대학에 속해있는 컴퓨터관련 학과들을 따로 모아 단과대학을 구성한 것이다. 인문계열 역시 실용학문 위주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 전체 인문계열의 60%이상이 경영대학으로, 전통적인 경영학을 배우는 경영학과, 경영학 뿐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 이론을 함께 배우는 e-비즈니스학과,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재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금융공학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역시 특화된 전공으로 아주 세분화 되어있다. 이런 학사체계 때문에 아주대학교는 취업률이 높다. 공과대학,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만 졸업해도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인 이른바 '전화기(전자공학과, 화학공학, 기계공학과) 학과'가 아주대학교에서도 취업률이 높다. 2011년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취업률을 기준으로 **기계공학부**의 경우 96.1%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학원 진학자까지도 미취업으로 분류한 통계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을 제외하면 모두 취업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전자공학부**는 92.9%, 화공신소재공학부는 8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공과대학의 경영학과로 불리우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는 92%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도 타 대학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편으로 경영대학의 **e-비즈니스학부**는 75.5%의 취업률을 보였다.





아주대학교만의 특성화 학과

아주대학교는 실용학문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학과를 신설하기도 하고, 기존의 학과에서 좀 더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장하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인 교양이 풍부하면서도 본인의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T자형 인재를 추구하는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한 융·복합학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 신입생을 선발하는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획, 제작, 마케팅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전시, 공연,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외부전문가 초청강의, 소학회 등 비교과 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식객, 파랑주의보, 미인도 등을 연출한 전윤수 감독을 교수로 영입해 실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정보통신대학의 미디어학과의 ‘스마트콘텐츠 전공’과 결과물은 같지만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으로 문과 출신의 학생들에게 적당한 전공이다. 2년 전 인문대학의 연계전공으로 신설하여 복수전공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재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 중 문과학생도 많지만 미디어학과 학생들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부터는 아주대학교가 전체적으로 학과제로 전환(사회과학부 제외)하면서 제 1전공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2010학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 경영대학의 **금융공학**과는 경영, 수학, 경제, 컴퓨팅 사이언스를 합친 융합학문으로 금융자산과 금융과생상품

을 설계하고 가치평가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기존의 경영학에서 재무분야를 조금 더 특화해 가르치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단독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5년간 75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정시 합격자들이 평균 상위 95%정도 되며 수시 합격자들은 대부분 과학고 출신이다. 한마디로 워런 버핏같은 펀드매니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해 신설한 정보통신대학의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기획, 개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항공, 자동차 등의 하드웨어에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기획력까지 필요한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7년간 38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24개 국내 IT융합도메인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140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또 A, B, F 학점제를 시행해 C 이하의 점수가 나온 학생은 다시 재수강을 하도록 하면서 파워멘토링으로 학생들이 학과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들은 모두 정시에서 선발했는데 상위 92%이상 되는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보컴퓨터공학과내의 소프트웨어보안 전공은 기존의 컴퓨터공학에서 정보보안 분야를 특화해 보안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이다.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거나 인터넷 보안등을 연구하는 전공으로 프로그래밍 뿐 아니라 윤리, 인성부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신설한 **미디어학과**는 문화콘텐츠학과와 같이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 과지식을 기반으로 디자인, 프로그래밍등을 주로 하는 인재를 길러낸다. 올해부터는 **스마트콘텐츠전공**(어플, 게임, 영상 교육 등 콘텐츠 기획, 제작)과 **소셜미디어전공**(소셜어플리케이션을 기획, 제작해 서비스, 상품개발로 활용)으로 나누어 학생을 선발한다. 한마디로 애플의 스티브잡스 같이 이공계열의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획자를 길러내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래의 아주대학교 모습, 기대해도 좋다!

대학은 무생물이 아니다. 학교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를 뿐 대학은 끊임 없이 발전, 진화, 퇴보한다. 어쨌든 쉬지 않고 변화한다. 특히 아주대학교와 같이 규모가 작고, 시대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실용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 변화가 더욱 빠르다. 우리 아주대학교가 최초가 많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 학생중심의 대학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대학마다 특징이 있고, 아주대학교 처럼 이공계열, 특히 실용적인 학문인 공과계열이 발달한 대학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유래한 ‘상아탑’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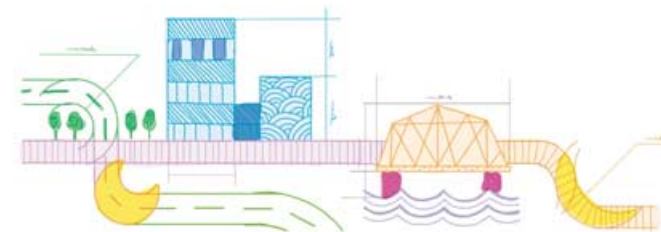


아주대학교 입학처장 김 경 래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한국의 대학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아주대학교의 특성화학과들은 2013학년도 현재의 모습이다. 당장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인 모습은 지금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14년에도, 2024년에도 아주대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이고, 학생중심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발전하고, 진화하는 속도가 그때 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대학교는 계속 변화할 것이고, 변화의 중심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대학교는 1973년 개교 이래 쉬지 않고 변화했고, 지금 현재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입학처장으로서, 아주대학교의 교수로서, 아주대학교를 20년 가까이 지켜본 아주인으로서, 아주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미래의 아주대학교 모습, 기대해도 좋다!”



아주사랑

아주대학교는 무한경쟁을 기회 삼아 '더욱 앞서가는 대학',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학' 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 상반기, 많은 분들이 아주대학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주대를 사랑하는 진심어린 후원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5	
	1		6	
3	2		7	
	4		8	

1.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장학회 장학금 전달

우리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로 구성된 한마음장학회가 6월 20일 총장실에서 장학금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석호현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장학회 회장과 공공정책대학원 동문 대표들이 참석해 학교 측에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장학회는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이 2010년 마련한 장학회로서 지난해에도 2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2. '아주 쏘시에떼 도네르' 창립

총동문회가 지난 6월 13일 율곡관에서 '아주 쏘시에떼 도네르(Ajou Société d'Honneur)'를 창립하고 매학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에게 일정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쏘시에떼 도네르'는 영어의 'Society of Honor'에 해당하는 불어로써 '명예클럽'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 클럽 멤버들은 매학기 20명의 학생들에게 30만원을 4개월간 지급해 연간 40명에게 총 4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

3. 잇따른 발전기금 납부자들에게 감사패 전달

발전기금 기부자 황상규(공업경영77) 동문, 허용(현경) 대표 내외 그리고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이 6월 8일 총장실에서 안재환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황상규 동문은 교통공학과 20주년 기념 행사지원금 1천 2백만 원을 기부했고, 허용 대표는 아주 후원의 집 캠페인에 참여, 1천만 원을 기부했다. 허용 대표의 기부금은 '현경장학금'이란 이름으로 3명의 학생들에게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 150만원씩이 지급됐다.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도 총 3천만 원을 약정하고 그 중 7백만 원을 납입했다.

4. IBK기업은행 3천만원 기부약정

IBK기업은행이 향후 3년간 총 3천만 원을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5월 7일 약정식을 가졌다. IBK기업은행 안동규 부행장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여백'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양 기관이 그 여백을 채워나가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 '39살 아주가 달려갑니다' 모금 캠페인 약정식 열려

'39살 아주가 달려갑니다' 모금 캠페인 약정식이 4월 23일 율곡관 열렸다. 약정식에는 안재환 총장, 김민구 기획처장, 송현호 학생처장, 조영호 경영대학원장,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안재환 총장의 3천만 원 발전기금을 포함해 총 8천1백만 원의 발전기금이 약정됐다. 안재환 총장은 "우리 학교 전체 구성원 및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에 모금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싶다"며 "목표 모금액인 200억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6. 신우식·이경옥 부부,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 기부

우리학교 인근 '개군한우' 식당을 운영 중인 신우식·이경옥 부부가 4월 23일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경옥 씨의 가족 중 2명이 아주대 동문인 것을 인연으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했다. 두 부부는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 기부문화가 확산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7. 인조 잔디구장 건립 유치 기념식 열려

인조 잔디구장 건립 유치 기념식이 3월 26일 안재환 총장,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9월 인조 잔디구장 설치 계획을 민주당, 수원시, 경기도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억5천만 원 지원을 통보 받았다. 안 총장은 기금미련에 크게 기여한 김진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삼구 경영대학원 동문회장은 인조 잔디구장 건립 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는 대학발전본부(219-2107)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8.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로스쿨 학생들 3등 입상 상금 전액 기부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승철, 김효령 신유리 학생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한 대법원 주최 '가인 법정변론 대회'에서 형사부분 3위를 기록해 법률신문사 사장상과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한 상금 전액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치열한 예선을 거친 민사, 형사 부문 각 6개팀이 2월 13일 최종 결선을 펼쳤다. 양승철 학생은 "대회 참가에 따른 많은 부분을 학교로부터 지원받았고 수상도 당연히 학교 덕분이라 생각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 이규식 동문, 1천만원 발전기금 납입

경영대학원 이규식 동문이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하고 3월 7일 안재환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규식 동문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금이 학교를 위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주사랑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2012.2~ 5)

교직원 교수

강현 / 강혁 / 곽광윤 / 권건보 / 권순정 / 김경래 / 김광윤 / 김문석 / 김민구 / 김병관 / 김서용 / 김승주 / 김영래 / 김유권 / 김현명 / 남석현 / 노학래 / 모선일 / 문은표 / 민경도 / 박만규 / 박지원 / 백윤기 / 서정애 / 소병천 / 송현호 / 오동석 / 오승한 / 위규범 / 위영철 / 유재석 / 유우일 / 윤태영 / 윤호섭 / 이교범 / 이병욱 / 이선이 / 이승길 / 이완근 / 이원희 / 이윤제 / 이재신 / 이준섭 / 이진국 / 이천우 / 이현환 / 임석철 / 장정애 / 장혜영 / 전영목 / 정대용 / 정태용 / 조지만 / 진미경 / 최윤희 / 최진안 / 한상돈 / 한영수 / 한지영

교직원 직원

권혁표 / 김기현 / 김동석 / 김수영 / 김시천 / 김영길 / 김윤기 / 김종현 / 나기석 / 박승진 / 박일분 / 박형식 / 송홍배 / 신형섭 / 안영식 / 안영찬 / 안재환 / 양광모 / 양성모 / 엄일중 / 왕재선 / 우효정 / 유경호 / 유시대 / 윤정용 / 이강준 / 이기홍 / 이도섭 / 이영철 / 이태재 / 임승오 / 임영규 / 정기훈 / 정영근 / 정해근 / 제갈훈 / 조재현 / 진성호 / 천순자 / 최영호 / 최진구 / 최홍영 / 황원복

동문

김동길(행정04) / 강경아(경영대학원) / 강상엽(경영대학원) / 강성일(환경86) / 강신호(전자74) / 강영실(경영대학원) / 건축학과 학생일동 / 공태국(전자87) / 권성현(컴공01) / 김교정(경영대학원) / 김기호(재료84) / 김성철(공경76) / 김성희(기계77) / 김숙영(영문80) / 김승범(경영90) / 김연석(기계81) / 김연석(기계81) / 김영목(경영대학원11) / 김영배(경영대학원) / 김용태(심리90) / 김운숙(경영대학원) / 김인수(경영87) / 김인용(경영대학원) / 김종윤(경영대학원) / 김중권(전자73) / 김진광(경영대학원) / 김태환(행정90) / 김현섭(경영91) / 김효령(법학전문대학원) / 김효식(화공74) / 나경진(경영대학원) / 나창용(경영82) / 나충주(화공87) / 류승우(화공91) / 모루시스템 대표: 이정준(ITS대학원04) / 문재경(재료86) / 미리클전자 대표:김기호(재료84) / 박상신(경제91) / 박성진(전산86) / 박승엽(경영대학원) / 박신열(전자82) / 박종석(산공87) / 박준남(경영대학원) / 박태원(경영대학원) / 박현주(컴공09) / 설영진(ITS대학원05) / 손영필(경영대학원) / 신유리(법학전문대학원) / 신재윤(산업대학원) / 안동영주항우회 / 안삼규(경영대학원) / 안순재(경영대학원) / 안승태(재료85) / 양국현(기계81) / 양대훈(불문85) / 양상필(경영대학원) / 양승철(산업대학원02) / 양승철(법학전문대학원) / 임재호(의학92) / 염우영(국문95) / 염현섭(경영대학원) / 오인자(경영대학원) / 오태원(재료84) / 유광열(전자73) / 윤정훈(경영대학원) / 이계주(공경80) / 이규식(환경91) / 이근복(화공82) / 이기중(ITS대학원11) / 이길우(경영대학원) / 이미국(간호학02) / 이삼구(경영대학원) / 이영희(경영대학원) / 이용재(전자78) / 이윤재(경영대학원) / 이종연(경영82) / 이주연(평생교육원) / 이호준(일반대학원) / 임덕진(경영대학원) / 장삼진(경영대학원07) / 장성천(재료86) / 정기선(경영대학원) / 정기정(화공73) / 정은숙(경영대학원) / 정창영(경영대학원) / 조석근(경영대학원) / 조영상(법학87) / 조용태(경영대학원) / 조원중(경영대학원) / 조선수(경영대학원) / 차광재(경영대학원) / 최경덕(행정90) / 최명용(환경95) / 최영규(ITS대학원11) / 최영락(재료87) / 최우식(불문94) / 최재승(경제95) / 하석주(경영86) / 한국도로공사원우회 / 한인섭(기계85) / 홍성길(경영83) / 홍지훈(기계96) / 황상규(공경77) / (사)아주대학교 동문장학회 / (주)경 봉 대표:양남문(ITS대학원09) / 보광토탈이엔지(주) 대표:백재민(ITS대학원) / (주)벤티코리아 대표:김대현 / (주)성호스텐 대표:김기권(경영대학원) / (주)한국푸앤크 대표:김근호(산업대학원) / (주)홍익기술단 대표:성낙전(ITS대학원)

일반

김순호 / 김호겸 / 박영금 / 배희숙 / 백호봉 / 이동환 / 정규찬 / 최재혁 / 한영기 / 황규복 / 그린화원 / 네이비스시스템(주) / 뉴플러스 정보통신(주) / 대영산업개발 주식회사 / 대영유비텍(주) / 대창기업(주) / 렉스젠(주) / 문젠지니어링(주) / 물맑은양평개군한우 수원점 / 비티에스테크놀로지스(주) / 삼원기계(주) / 서교정보통신(주) / 선빌딩 / 스탠다드차티드은행 / 인성전자 / 주식회사 대건이앤씨 / 주식회사 대로 /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 코카콜라음료(주) / 플그린테크(주) / (재)경동장학재단 이사장:김용욱 / (재)구원장학재단 이사장:황필상 / (재)아경장학재단 이사장:한재수 / (주)대륙아이티에스 / (주)레도 / (주)보다엔시스 / (주)비전도시연구소 / (주)비츠로씨앤씨 / (주)서돌전자통신 / (주)수성엔지니어링 / (주)수지로드텍 / (주)에스테크윈 / (주)엔투스정보통신 / (주)우진기전 / (주)유신전기 / (주)유진이앤씨 / (주)정무이앤씨 / (주)평화엔지니어링 / (주)퓨전아이앤씨 / (주)플라워라인 / (주)한일디엔에스

학부모

고연숙 / 곽동은 / 김기운 / 김남숙 / 김대균 / 김영숙 / 김춘희 / 박종호 / 안종길 / 오선자 / 오세연 / 이성호 / 이안선 / 이영희 / 이현우 / 전철구 / 전현선 / 정산홍 / 정은숙 / 정혜자 / 최안식 / 한금옥 / 한기업 / 황미옥

의료원 직원

임문채 / 홍권희

교직원 교수

김동근 / 고근하 / 곽노준 / 곽명숙 / 권순정 / 권오필 / 권익진 / 김경래 / 김도영 / 김동완 / 김문석 / 김민구 / 김병곤 / 김상열 / 김수용 / 김순태 / 김승주 / 김영길 / 김영숙 / 김영주 / 김연진 / 김유권 / 김재현 / 김춘자 / 김현욱 / 김형수 / 김형택 / 김혜선 / 김호섭 / 김홍수 / 김홍식 / 노민수 / 노학래 / 문승재 / 문은표 / 문창규 / 문혜원 / 민병현 / 민철기 / 박기동 / 박기현 / 박만규 / 박범 / 박성진 / 박승규 / 박영동 / 박용배 / 박용환 / 박인규 / 박재연 / 박정식 / 박지원 / 박진희 / 박태원 / 방승진 / 백윤기 / 백은주 / 범진환 / 서경원 / 서문호 / 서원희 / 서형탁 / 소의영 / 손정훈 / 손태식 / 송용진 / 송현호 / 신준한 / 신호준 / 안영환 / 안현남 / 엄동일 / 오영태 / 오영택 / 용세중 / 유동문 / 유문숙 / 유미애 / 유재석 / 유희석 / 윤원식 / 윤현철 / 이경중 / 이교범 / 이기근 / 이병욱 / 이분열 / 이상국 / 이상민 / 이성섭 / 이수진 / 이숙향 / 이자성 / 이정원 / 이준환 / 이준섭 / 이지연 / 이채우 / 이철기 / 이평천 / 이형천 / 이혜경 / 임기영 / 임석철 / 임재성 / 임재익 / 장준호 / 장혜영 / 전영목 / 전홍우 / 정경훈 / 정기현 / 정연호 / 정옥희 / 정윤석 / 정아하 / 정태선 / 조광국 / 조광순 / 조기홍 / 조두진 / 조영호 / 조재형 / 조종열 / 조하연 / 조혜성 / 차영선 / 최경희 / 최기련 / 최상돈 / 최수영 / 최윤희 / 최태영 / 최홍근 / 하영화 / 한호 / 함형미 / 함효준 / 현영선 / 홍성기

교직원 직원

갈원모 / 강한현 / 고병수 / 고순재 / 구자영 / 권용금 / 권주연 / 김경숙 / 김권기 / 김규남 / 김근 / 김근태 / 김기문 / 김기현 / 김동석 / 김동현 / 김성준 / 김수영 / 김승권 / 김시천 / 김영국 / 김영기 / 김용순 / 김은희 / 김인애 / 김재은 / 김정효 / 김중현 / 김지혜 / 김형근 / 김형식 / 나기석 / 나명순 / 남현우 / 노동현 / 문병철 / 문영준 / 문재호 / 박민경 / 박봉기 / 박성숙 / 박일분 / 박재홍 / 박재채 / 박철균 / 배영환 / 백선희 / 송미숙 / 송성용 / 송은주 / 송홍배 / 신경철 / 신순옥 / 신정수 / 신정철 / 신형식 / 심우영 / 안선미 / 안순일 / 안영찬 / 안재환 / 양광모 / 양성모 / 양희창 / 오상경 / 오성탁 / 우용재 / 우효정 / 위정식 / 유경호 / 유시대 / 육현민 / 윤재승 / 윤진 / 윤혜정 / 이강준 / 이기욱 / 이기홍 / 이도섭 / 이동렬 / 이명호 / 이명희 / 이미영 / 이미지 / 이병근 / 이석원 / 이선형 / 이성아 / 이수영 / 이영옥 / 이영철 / 이영현 / 이용훈 / 이은경 / 이은규 / 이인풍 / 이재의 / 이지현 / 이태재 / 이현규 / 이호중 / 이흥수 / 인정숙 / 임홍식 / 장세덕 / 장영주 / 장준호 / 정기훈 / 정서진 / 정세호 / 정정문 / 정해근 / 정홍학 / 조경숙 / 조재현 / 지승철 / 진성호 / 천순자 / 최성혜 / 최영호 / 최정영 / 최진구 / 최창기 / 최춘식 / 최희자 / 허택만 / 현남주 / 홍영수 / 황원복

동문

김정규(경영79) / 강경원(기계81) / 강경택(기계78) / 김기현(화공79) / 김두경(산공97) / 강명희(경영80) / 강병돈(산공85) / 강석배(경영83) / 강석환(화공81) / 강신구(화공79) / 강신호(전자74) / 강영모(경영대학원10) / 강윤환(화공90) / 강진모(물리88) / 강태원(건축12) / 강태현(전자75) / 강형호(재료89) / 강호출(재료84) / 강훈(화공76) / 강희석(전자84) / 강희진(경영86) / 강정현(경영84) / 강태영(경영80) / 고강현(산공82) / 고건웅(미디어03) / 고대권(산공81) / 고동식(전자80) / 고병각(산공96) / 고성민(환경85) / 고재만(전자80) / 고재상(국문85) / 고중섭(산공77) / 곽광경(불문80) / 곽정신(경영96) / 곽창식(경영83) / 구병춘(기계81) / 구유철(기계87) / 구자현(기계76) / 구혜진(전자89) / 권광우(경영90) / 권기형(전자80) / 권대진(환경81) / 권범규(기계75) / 권영민(전자79) / 권오중(전자89) / 권우택(화공81) / 권재일(의학89) / 권주빈(전자89) / 권태인(기계81) / 권혁동(산공79) / 권혁면(화공75) / 금동순(기계78) / 김경규(경영87) / 김경현(전자75) / 김경희(기계79) / 김경희(불문81) / 김구용(기계81) / 김규봉(화공81) / 김규진(경영88) / 김기섭(재료84) / 김기준(경영대학원05) / 김기창(경영대학원06) / 김기태(기계79) / 김기호(재료84) / 김길성(경영90) / 김남기(경영80) / 김대용(전산86) / 김대용(화공96) / 김대우(미디어12) / 김대홍(산공77) / 김동규(경영86) / 김동백(경영90) / 김동욱(전산86) / 김동욱(환경92) / 김두용(산공78) / 김두호(전자76) / 김명수(컴공88) / 김명식(경제82) / 김문관(재료85) / 김미숙(국문91) / 김민(건축02) / 김민용(화공80) / 김범수(경제01) / 김병기(기계85) / 김병섭(전산81) / 김병주(의학92) / 김병준(화공82) / 김봉렬(공경79) / 김봉준(경영98) / 김상권(산공80) / 김상동(기계80) / 김상선(기계80) / 김석훈(경영78) / 김선규(화공90) / 김선기(전자79) / 김신태(기계78) / 김성만(ITS대학원06) / 김성우(화공79) / 김성원(기계96) / 김성철(기계85) / 김성현(전자78) / 김성희(기계77) / 김세득(영문79) / 김세영(산공79) / 김세철(전자78) / 김승암(화공75) / 김수근(영문79) / 김수기(기계78) / 김수철(화공73) / 김수현(환경95) / 김순미(인문학부10) / 김승규(영문80) / 김승만(전자82) / 김승진(ITS대학원) / 김승희(화공88) / 김시범(전자79) / 김시원(경영90) / 김양현(전자80) / 김연석(기계81) / 김연수(전자80) / 김영무(기계90) / 김영서(재료86) / 김영주(기계79) / 김영중(산공79) / 김영중(전자80) / 김영찬(전자81) / 김영천(전산03) / 김요용(환경81) / 김용갑(전자81) / 김용갑(전자81) / 김용경(전자91) / 김용구(산공80) / 김용국(산공03) / 김용기(산공80) / 김용운(전자80) / 김용태(심리90) / 김용호(기계77) / 김우원(경제89) / 김욱중(기계79) / 김원식(미디어03) / 김유복(기계80) / 김유신(전산83) / 김윤정(기계78) / 김윤태(기계83) / 김은호(화공77) / 김익환(화공79) / 김일수(전자81) / 김재정(기계79) / 김재호(산공78) / 김재호(기계81) / 김재환(전산82) / 김재권(경영80) / 김정현(전자81) / 김정호(환경84) / 김제경(화공77) / 김종길(기계79) / 김종남(화공79) / 김종범(경영80) / 김종섭(화공81) / 김준용(경영91) / 김준오(전자81) / 김준원(기계80) / 김중준(전자79) / 김중철(영문80) / 김중철(컴공96) / 김주봉(산공78) / 김주석(수학87) / 김주태(불문80) / 김주환(기계78) / 김준용(수학99) / 김준구(산공73) / 김지관(전자78) / 김지훈(기계78) / 김지훈(전산85) / 김진명(전산82) / 김진안(행정85) / 김진우(기계77) / 김진원(기계81) / 김진희(전자01) / 김진효(경영83) / 김찬우(전자81) / 김창규(화공01) / 김창균(전자80) / 김창욱(경영78) / 김창조(경영84) / 김창주(산공81) / 김창진(화공85) / 김창철(전자79) / 김철수(영문80) / 김철호(경영81) / 김태경(화공79) / 김태식(기계81) / 김태영(기계81) / 김태욱(전자80) / 김태훈(경영대학원06) / 김필기(전자81) / 김학구(화공79) / 김학철(화학96) / 김한복(기계76) / 김현규(기계79) / 김현(경제97) / 김현섭(경영91) / 김현준(전산85) / 김형식(전자81) / 김형우(전자94) / 김형준(환경84) / 김홍석(경영78) / 김한욱(경영96) / 나중호(경영87) / 나창운(화공80) / 나창일(산공81) / 나태영(전자97) / 남궁규태(기계79) / 남상신(산공83) / 남승우(경영96) / 남승현(법학03) / 노천규(화공80) / 노희정(전자81) / 류상현(기계80) / 류원대(경영대학원08) / 류종규(행정04) / 류지상(전산86) / 류홍천(전자79) / 마명섭(전자81) / 명재호(컴공87) / 문경식(화공80) / 문관수(전자79) / 문양현(전자79) /

아주사랑

1-1-1 캠페인 기부자(2012.2~5)

문연숙(불문79) / 문영춘(전자77) / 문유건(산공82) / 문재경(재료86) / 문화봉(전자81) / 민병갑(기계80) / 민병윤(경영80) / 민정기(경제83) / 민종식(경제04) / 민준영(산공78) / 박강서(전자79) / 박건수(화공80) / 박건용(전자95) / 박경수(전산82) / 박경준(기계80) / 박광준(기계76) / 박광호(전자80) / 박근우(화공84) / 박기원(경제85) / 박기준(행정88) / 박낙원(산업대학원06) / 박대원(경영89) / 박동애(불문80) / 박동진(산공79) / 박맹상(경영90) / 박문산(전자97) / 박문순(경영86) / 박문찬(경영95) / 박미희(경영80) / 박범식(전자82) / 박병우(영문79) / 박병윤(환경88) / 박병창(화공82) / 박상오(기계79) / 박상욱(화공88) / 박성준(기계78) / 박성환(기계80) / 박세규(산공79) / 박수진(전자80) / 박수진(화공80) / 박순식(산공87) / 박순웅(경영93) / 박신열(전자82) / 박안홍(기계79) / 박연희(경영04) / 박영동(화공79) / 박영복(전자79) / 박영석(화공80) / 박영애(산업대학원11) / 박우경(불문80) / 박원희(기계83) / 박유성(전산82) / 박인기(경제84) / 박재길(기계74) / 박정훈(전자79) / 박종경(화공81) / 박종기(화공80) / 박종석(산공87) / 박종용(산공78) / 박종원(경영87) / 박종윤(전자80) / 박주언(컴공96) / 박주원(화공80) / 박진호(전자83) / 박찬웅(전자76) / 박찬효(경영79) / 박창동(화공77) / 박철(산공80) / 박충림(불문80) / 박태동(기계79) / 박혁(전자85) / 박홍웅(전자79) / 박환창(불문84) / 박효순(기계81) / 박희진(화공79) / 박희태(산공73) / 반영무(기계77) / 반철희(경제84) / 방경원(전자80) / 방병천(전자80) / 배성준(전자80) / 배익호(전자03) / 배학원(기계80) / 백성우(정순임)(환경81) / 백승천(산공81) / 백차현(전자99) / 변경수(화공78) / 변동진(경영84) / 변태환(불문80) / 부춘성(화공92) / 서기준(경영03) / 서명원(화학87) / 서미화(산업대학원11) / 서보건(경영97) / 서봉현(기계79) / 서상원(환경81) / 서성택(기계80) / 서수현(경영97) / 서영덕(생명과학98) / 서정현(기계78) / 서화덕(영문80) / 석광열(영문80) / 설희득(기계78) / 손두현(산공79) / 손석삼(공경80) / 손순환(화공80) / 손지영(경영01) / 송경수(경영85) / 송근섭(경영80) / 송기삼(전자79) / 송기정(전자82) / 송기찬(전자82) / 송명동(화공84) / 송병식(기계76) / 송승용(컴공87) / 송원준(불문80) / 송재규(산공85) / 송정수(건축99) / 송중식(불문83) / 송호영(전자95) / 신경우(경영78) / 신동주(경제95) / 신동철(전산81) / 신동철(전산81) / 신동희(전자77) / 신두철(불문79) / 신명호(전산85) / 신병우(산공79) / 신상운(화공78) / 신영철(전자81) / 신용강(경영84) / 신웅식(경영82) / 신의수(경제82) / 신재윤(산업대학원11) / 신정섭(기계80) / 신정진(기계85) / 신중대(환경86) / 신준하(화공88) / 신준호(경영83) / 신지원(경영대학원) / 신창효(법학88) / 신춘섭(화공73) / 신태창(화공79) / 신학순(산공79) / 신현주(환경99) / 신호연(전자80) / 심관용(경영84) / 심우성(경영84) / 심용섭(영문80) / 심인석(화공77) / 심정철(전자84) / 안병식(기계74) / 안병열(전자88) / 안병철(경영81) / 안선호(기계81) / 안승태(재료85) / 안예환(산공79) / 안재성(재료94) / 안재영(산공80) / 안창영(전자81) / 안창준(기계80) / 안철순(산공77) / 안치규(기계80) / 안태훈(전자80) / 안호영(경영84) / 양광희(기계76) / 양국현(기계81) / 양문모(전산85) / 양미령(생명과학07) / 양병용(기계80) / 양성식(기계79) / 양승권(전자81) / 양승렬(기계79) / 양시영(기계81) / 양영재(경영93) / 양만식(전자78) / 양정현(기계11) / 양호진(산공81) / 어승규(기계79) / 어윤하(기계81) / 엄경이(영문84) / 엄민희(경제92) / 엄재득(산공79) / 엄정완(기계79) / 엄태문(기계78) / 염우영(국문95) / 오경윤(전산85) / 오귀석(전자78) / 오성원(경영95) / 오세태(경영88) / 오영근(산공79) / 오재영(기계81) / 오정락(전산81) / 오주영(화공80) / 오준서(건축11) / 오태승(산공81) / 오택원(화공79) / 옹은희(사학95) / 우병주(기계82) / 우상혁(기계88) / 우신석(화공81) / 우원근(전자79) / 우창원(기계79) / 원윤희(공경76) / 원종남(전자79) / 원주경(환경86) / 원치호(전자05) / 유갑진(기계81) / 유광열(전자73) / 유기삼(경제84) / 유명호(경영80) / 유병대(전자75) / 유상근(환경83) / 유상원(국문92) / 유성별(전자77) / 유승선(전산87) / 유용수(경영84) / 유용식(전자80) / 유인상(전자80) / 유재권(경영81) / 유충삼(기계76) / 유태근(화공80) / 유한석(기계78) / 유현준(산공75) / 유호상(재료87) / 윤기원(화공78) / 윤석희(전자82) / 윤승원(화공78) / 윤영주(산공00) / 윤인수(경영97) / 윤종섭(화공78) / 윤종근(경영84) / 윤춘기(기계84) / 윤환(국문83) / 은유진(컴공89) / 음광열(산업대학원) / 이강기(경영83) / 이강현(전자75) / 이건화(산공79) / 이경섭(기계81) / 이경재(기계74) / 이경중(화공80) / 이경현(기계79) / 이계주(공경80) / 이광노(화공85) / 이광용(기계81) / 이광중(경영81) / 이광호(산공78) / 이규철(전자73) / 이근식(기계80) / 이금숙(불문79) / 이기근(경영88) / 이기중(TS대학원) / 이대별(경영84) / 이동기(전자80) / 이동원(재료84) / 이두영(산공78) / 이만성(기계78) / 이만호(경영78) / 이명운(기계75) / 이문근(전산86) / 이문하(환경86) / 이미경(교육대학원06) / 이민경(경영01) / 이병근(전자73) / 이병선(경영79) / 이병엽(경영85) / 이병조(기계81) / 이병호(전자80) / 이상(산공81) / 이상성(경영89) / 이상엽(환경05) / 이상원(전자80) / 이석현(경영대학원03) / 이상근(컴공96) / 이상식(전자77) / 이상식(국문83) / 이상식(기계74) / 이상영(산공77) / 이성운(기계81) / 이성윤(산공81) / 이승호(경제84) / 이순태(화공73) / 이순택(기계81) / 이승근(기계80) / 이승제(화공76) / 이승현(전자82) / 이연강(전자79) / 이연희(불문79) / 이영규(산업대학원10) / 이영국(기계81) / 이영범(경영86) / 이영석(산공79) / 이영일(경영80) / 이영호(전자80) / 이왕형(경영85) / 이용로(기계75) / 이용복(기계77) / 이용수(기계81) / 이용욱(경영81) / 이용운(화공80) / 이용재(전자78) / 이우암(경영81) / 이우갑(경영81) / 이운하(화공89) / 이웅교(산공78) / 이은성(불문79) / 이은형(사회92) / 이응정(경영87) / 이응표(불문79) / 이인규(환경81) / 이인호(전자79) / 이일주(전산81) / 이재성(화공79) / 이재진(기계79) / 이재평(재료84) / 이정돈(기계78) / 이정삼(전자78) / 이정인(행정93) / 이정재(건축96) / 이정준(TS대학원04) / 이정호(전자73) / 이정훈(전자78) / 이종연(경영82) / 이종용(기계81) / 이종원(전자79) / 이주환(기계87) / 이준영(환경05) / 이준은(화공80) / 이준호(법학93) / 이자상(미디어01) / 이지원(경영학부11) / 이진신(경영대학원07) / 이창수(산공73) / 이창우(전산82) / 이창원(기계75) / 이창훈(기계87) / 이충균(경영대학원) / 이충식(기계77) / 이태희(의학94) / 이하영(기계81) / 이한규(기계85) / 이한규(기계80) / 이한석(경영86) / 이항숙(경영81) / 이항희(영문96) / 이현명(화공77) / 이현상(화공76) / 이형무(기계77) / 이형익(영문79) / 이호균(전자79) / 이화수(신소재공학06) / 이희영(경영대학원04) / 임경빈(산공81) / 임근찬(산공81) / 임동하(행정88) / 임명훈(경영94) / 임모환(기계76) / 임민호(산공77) / 임병업(경제81) / 임생기(기계79) / 임석배(전산86) / 임성욱(기계89) / 임영무(전산81) / 임영준(산공74) / 임용백(경영81) / 임인재(화공83) / 임정혁(영문80) / 임종섭(화공79) / 임종섭(영문79) / 임종환(전자80) / 임진규(산공79) / 임창규(전산82) / 임채중(기계93) / 임춘섭(기계77) / 임춘성(기계79) / 임태규(공경80) / 임형재(컴공87) / 장기순(기계74) / 장병정(경제99) / 장상만(전자80) / 장선규(화공79) / 장성현(화공79) / 장용석(화공85) / 장용석(산공80) / 장준석(전자79) / 장지순(환경81) / 장호(기계80) / 전병수(전산85) / 전성일(화공94) / 전성환(전자80) / 전승민(전산87) / 전재현(화공79) / 전진수(전자75) / 전창규(전자04) / 전현수(동문) / 정규범(전자80) / 정규해(건설시스템공학02) / 정기정(화공73) / 정동민(경제82) / 정동열(전산81) / 정미숙(국문86) / 정민호(화공82) / 정방권(전자79) / 정성환(산공79) / 정승화(경영78) / 정연관(전자79) / 정연호(환경81) / 정왕진(영문79) / 정오열(생명공학11) / 정윤기(기계80) / 정일규(산공77) / 정점래(TS대학원) / 정종관(화공03) / 정준모(화공90) / 정창경(영문79) / 정태화(환경81) / 정혜준(화공79) / 정현용(경제99) / 정혜원(경영80) / 정희교(화공78) / 정희진(전자83) / 조길훈(기계79) / 조경태(경영84) / 조규태(경영86) / 조길원(화공79) / 조동식(경영84) / 조두현(전자80) / 조무창(경영대학원) / 조문준(행정86) / 조봉원(기계98) / 조성만(산업대학원03) /

조성태(영문80) / 조연재(전자79) / 조영록(기계81) / 조영호(전자87) / 조완익(경영85) / 조윤진(영문80) / 조익수(기계79) / 조종순(기계80) / 조종환(전자97) / 조종희(전자74) / 조해성(화공78) / 조형규(산공75) / 주동준(영문80) / 주민규(컴공96) / 주창원(기계76) / 주필삼(전자79) / 지승구(산공79) / 지영교(기계80) / 지춘수(산업대학원09) / 진동환(기계85) / 진명호(전자77) / 차상훈(산업대학원) / 차선희(경영87) / 차환윤(화공80) / 채상욱(건축97) / 채일(불문80) / 최근배(화공73) / 최기원(전자81) / 최기혁(기계80) / 최만조(기계81) / 최문규(전자75) / 최병국(전자80) / 최병학(산공77) / 최성달(산업대학원) / 최승순(불문94) / 최신영(산공98) / 최영두(재료90) / 최영택(재료87) / 최영수(산공78) / 최용욱(경영80) / 최원덕(환경81) / 최응선(기계78) / 최재승(경제95) / 최재은(자유전공) / 최재혁(경영대학원) / 최중욱(경영대학원) / 최중성(환경81) / 최중원(경제84) / 최희선(경영81) / 추병윤(전자80) / 표준상(전산82) / 한관희(산공78) / 한봉훈(산공86) / 한상준(기계77) / 한상철(영문81) / 한석근(기계85) / 한승호(산공00) / 한윤희(기계79) / 한종권(경영80) / 한진희(화공84) / 한태규(전자79) / 한효식(화공82) / 함간주(산공94) / 함경숙(화공86) / 함동일(산업대학원11) / 허기영(산업대학원) / 허려화(일반대학원04) / 허석수(재료84) / 허성철(수학93) / 현명주(공공정책대학원) / 홍권선(환경86) / 홍기택(화공78) / 홍대의(경영79) / 홍덕표(화공77) / 홍민철(전자80) / 홍범준(경영96) / 홍봉숙(수학85) / 홍석교(평생교육원) / 홍석표(기계78) / 홍성수(산공85) / 홍세경(전자78) / 홍순갑(기계78) / 홍지훈(컴공86) / 황교민(화공80) / 황금철(재료87) / 황덕모(경영79) / 황동선(화공79) / 황두성(전자89) / 황민숙(불문79) / 황민해(경영82) / 황병철(전자78) / 황선영(기계81) / 황수연(화공04) / 황안일(산공86) / 황우식(산공79) / 황인국(산공79) / 황정환(컴공87) / 황충국(경영78) / (주)경봉 대표:양남문(TS대학원) / (주)굿네트웍스 대표:이영규(산업대학원) / (주)대영엔텍 대표:박안현(산업대학원) / (주)성호스텐 대표:김기권(경영대학원) / (주)에이피코 대표:강방권(화학90) / (주)이포넷 대표:이득경(전자82) / (주)제이티 대표:박중서(TS대학원) / 미래공조(주) 대표:어경태(경영86) / 보광토탈이앤지(주) 대표:백재민(TS대학원) / 우진블트공업(주) 대표:정선호(산업대학원) / 유티정보(주) 대표:이대원(TS대학원) / 정우건설 서문욱(경영81) / ㈜한국푸앤코 대표:김근호(산업대학원)

일반

권우식 / 권중희 / 김인애 / 남광희 / 박정웅 / 박종춘 / 소진식 / 송석례 / 안기환 / 안혜영 / 오성호 / 이미영 / 이지현 / 임재수 / 조중용 / 최병용 / 최선정 / 현 수 / 홍혜린 / 아모레연서특약점 / 엔에프씨(NFC) / ㈜임피크

학부모

강명철 / 강병희 / 강복선 / 강석정 / 강성식 / 강성우 / 강순덕 / 강신희 / 강원길 / 강중우 / 강중수 / 강철 / 강호식 / 고동현 / 고은경 / 고은영 / 곽정화 / 곽한철 / 구미희 / 구본춘 / 구수영 / 구자홍 / 구형자 / 권경섭 / 권성환 / 권순자 / 권영자 / 권오웅 / 김경석 / 김경원 / 김경은 / 김경주 / 김경혜 / 김광자 / 김규원 / 김규태 / 김근인 / 김금균 / 김기영 / 김도원 / 김동기 / 김동식 / 김명임 / 김명호 / 김명화 / 김미자 / 김미정 / 김민영 / 김병진 / 김봉식 / 김부자 / 김삼덕 / 김석중 / 김선관 / 김선미 / 김선욱 / 김선자 / 김성숙 / 김성호 / 김수주 / 김순복 / 김시태 / 김신욱 / 김연숙 / 김영서 / 김유익 / 김은숙 / 김은실 / 김재학 / 김점소 / 김정구 / 김정목 / 김정수 / 김정오 / 김정자 / 김정환 / 김종구 / 김종국 / 김중산 / 김중숙 / 김주욱 / 김준식 / 김중형 / 김지영 / 김진언 / 김춘재 / 김태열 / 김태현 / 김현숙 / 김현희 / 김형선 / 김형준 / 김혜영 / 김홍광 / 김홍석 / 김홍용 / 김희숙 / 나혜란 / 남상능 / 남영실 / 남한모 / 노기열 / 노농길 / 노지연 / 도성재 / 류윤희 / 류지현 / 문원길 / 민병구 / 박경희 / 박계선 / 박기표 / 박만진 / 박미도 / 박미란 / 박미순 / 박미희 / 박삼순 / 박상기 / 박상희 / 박석희 / 박성욱 / 박수진 / 박순례 / 박승우 / 박언욱 / 박영두 / 박영만 / 박영식 / 박은영 / 박은욱 / 박인숙 / 박주현 / 박중수 / 박후삼 / 방성주 / 방현천 / 배미애 / 배연욱 / 백남태 / 백병하 / 백석민 / 백용호 / 변희진 / 봉금희 / 서미애 / 서순화 / 서용재 / 서유내 / 설광수 / 성금숙 / 성대중 / 성미혜 / 성인선 / 성점수 / 성태문 / 소귀섭 / 손문성 / 손보익 / 손인현 / 손재영 / 송경희 / 송명종 / 송명중 / 송미영 / 송수훈 / 송순임 / 송윤희 / 송정미 / 송정석 / 송희상 / 신동일 / 신장섭 / 신현기 / 안병립 / 안은욱 / 안익훈 / 양기천 / 양승석 / 양승수 / 양원식 / 양윤정 / 양정안 / 여철현 / 오기영 / 오용인 / 오창석 / 오형택 / 오혜경 / 오호영 / 왕영숙 / 우동석 / 우은경 / 위홍환 / 유강하 / 유권준 / 유명식 / 유보형 / 유상열 / 유정현 / 유혜주 / 유효순 / 윤광석 / 윤민경 / 윤상중 / 윤석열 / 윤성석 / 윤성희 / 윤인중 / 유주용 / 윤진섭 / 윤하경 / 이광희 / 이규환 / 이기복 / 이기섭 / 이기원 / 이기훈 / 이기훈 / 이기훈 / 이도규 / 이도래 / 이동성 / 이동열 / 이명주 / 이미자 / 이보영 / 이봉석 / 이삼근 / 이상규 / 이상근 / 이상순 / 이성우 / 이성현 / 이수민 / 이수정 / 이순택 / 이승미 / 이식용 / 이영규 / 이영미 / 이영학 / 이원숙 / 이윤교 / 이우영 / 이은숙 / 이은영 / 이은주 / 이은희 / 이인규 / 이재려 / 이재양 / 이진희 / 이정수 / 이정순 / 이정욱 / 이종서 / 이주현 / 이지영 / 이진우 / 이진희 / 이태원 / 이한록 / 이한영 / 이현욱 / 이현택 / 이희관 / 임동주 / 임미경 / 임봉길 / 임서영 / 임선욱 / 임선태 / 임민숙 / 임창근 / 장경남 / 장공진 / 장광열 / 장균 / 장남진 / 장석일 / 장선지 / 장소영 / 장용창 / 전도수 / 전상수 / 전우석 / 전정조 / 전현숙 / 정경희 / 정구영 / 정구창 / 정명신 / 정문기 / 정복길 / 정성윤 / 정순희 / 정연수 / 정의대 / 정의돌 / 정인선 / 정재기 / 정진경 / 정청용 / 정혜초 / 조경환 / 조규열 / 조규영 / 조명구 / 조명순 / 조재용 / 조재환 / 조진선 / 조한식 / 조현욱 / 주기영 / 조영천 / 진광선 / 차덕환 / 차영주 / 채경우 / 채명구 / 채영호 / 천명길 / 천승록 / 천행연 / 천희수 / 최만중 / 최명규 / 최미영 / 최상범 / 최성남 / 최수도 / 최순식 / 최승권 / 최영길 / 최영태 / 최윤영 / 최윤희 / 최인수 / 최인자 / 최칠금 / 최재은 / 최재필 / 최정은 / 최중우 / 최학철 / 최현만 / 최현아 / 탁덕권 / 한광남 / 한정숙 / 한진희 / 함기애 / 허경욱 / 허인영 / 허정미 / 허호무 / 홍영숙 / 홍정향 / 홍진선 / 황교숙 / 황명수

의료원 직원

박수용 / 송수근 / 임문체

아주사랑

아경장학금 기부자(2012.2~5)

고길민(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권안석(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 김강민(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 김경찬(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8기) / 김만수(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 / 김미경(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김민균(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6기) / 김성국(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김연창(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김원진(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김정임(아경장학재단 간사) / 김진광(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김태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김한성(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김현창(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김형균(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아경장학재단 부이사장)) / 김흥기(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김희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나영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문미경(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문정식(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19기) / 박경주(경영대 교수) / 박경희(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박대관(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 박상필(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9기) / 박선용(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3기) / 박영덕(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박재홍(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박종술(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7기(아경장학재단 이사장)) / 박종엽(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6기) / 박주연(경영대학원총동문회 간사) / 박태성(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박현명(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7기) / 배상열(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백성기(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0기) / 서명식(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서민환(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6기) / 서창원(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9기) / 성시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성열학(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송남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0기) / 송택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신명철(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6기) / 안병대(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8기(아경장학재단 이사)) / 안삼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안성휘(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오영희(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1기) / 오영택(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6기) / 오응주(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유기석(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3기) / 유민수(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유상목(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유상목(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유옥현(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윤호정(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 이광직(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이기명(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이기철(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이동영(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이민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이부철(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이삼구(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5기(총동문회장)) / 이성일(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이성환(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이옥희(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이의준(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 이점복(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6기) / 이정혜(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이태영(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7기) / 이현주(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9기) / 이형주(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5기) / 임준식(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6기) / 전병찬(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5기) / 전성미(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9기) / 전은선(경영대학원 MBA_Global Campus 45기) / 정기상(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8기) / 정창경(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9기) / 정태국(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3기) / 조영범(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조영호(경영대학원장) / 조한문(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진광식(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최근해(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8기) / 최덕희(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최성근(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 최재홍(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한갑동(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8기) / 한오연(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한재수(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8기(아경장학재단 명예이사장)) / 허익현(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홍순환(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6기(아경장학재단 이사)) / 홍재현(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홍준기(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황선욱(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7기) / 황진영(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5기) / 골프아카데미(회장 라도금)일동(경영대학원 골프아카데미 동문) / 아경포럼(회장 김도열)일동(경영대학원총동문회 아경포럼) / 서경희(회장 송남천)일동(경영대학원 서경희 일동) / 최고47기 동창회(회장 서동일)일동(경영대학원 최고47기 동창회) / mc45기 동창회(회장 송택규)일동(경영대학원 mc45기 동창회) / gc45기 동창회(회장 김정무)일동(경영대학원 gc45기 동창회)

아주후원의 집(2012.2~5)

가치있는법상(대표:방성숙) / 돈황갈비(대표:구복희) / 무교동유정낙지(대표:안병록) / 누누리(대표:서주희) / 아주스크린(대표:김원호) / 유니온플라워(대표:남하현) / 춘천숯불닭갈비(대표:이영이) / 제일짜개백반(대표:송기수) / 춘하추동(대표:강민영) / 태화장(대표:박경숙) / 허수아비(대표:정재호) / 현경(대표:허용)

1명의 선배가 1달에 1만씩 기부하는 1-1-1캠페인

“생각에만 머물지 마세요.
편리해진 방법으로
후배사랑을 보여 주세요.”

감동을 더하는 무한 아주사랑

차곡차곡 쌓을수록 커져가는 아주인의 무한감동 1-1-1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신 1-1-1 캠페인으로 모금한 장학금은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1-1-1 캠페인 참여하시는 방법

1.온라인약정 학교 홈페이지에서 1-1-1캠페인 배너 클릭후 약정서 작성

2.이메일/팩스약정 약정서를 작성하여 하단의 이메일 및 팩스로 송부

3.전화문의약정 하단의 대학발전본부로 전화문의하여 약정서 작성

* 위의 방법으로 약정하시면 1달에 1번, 1만원씩 선배님 통장에서 CMS 자동결제 됩니다

기부금 용도

재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 : 대학발전본부 <http://ajousarang.ajou.ac.kr> Tel 031-219-2107~9, 2099 Fax 031-219-1623 E-mail ajousarang@ajou.ac.kr